

제120년차 총회본부 정책 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행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제120년차 총회본부 정책 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행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 차례

총회본부/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6
총회본부 주요 민원사항 처리 절차	8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단의 발전과 현황 분석	9
SMART로 열어가는 총회 행정	83

총회본부 /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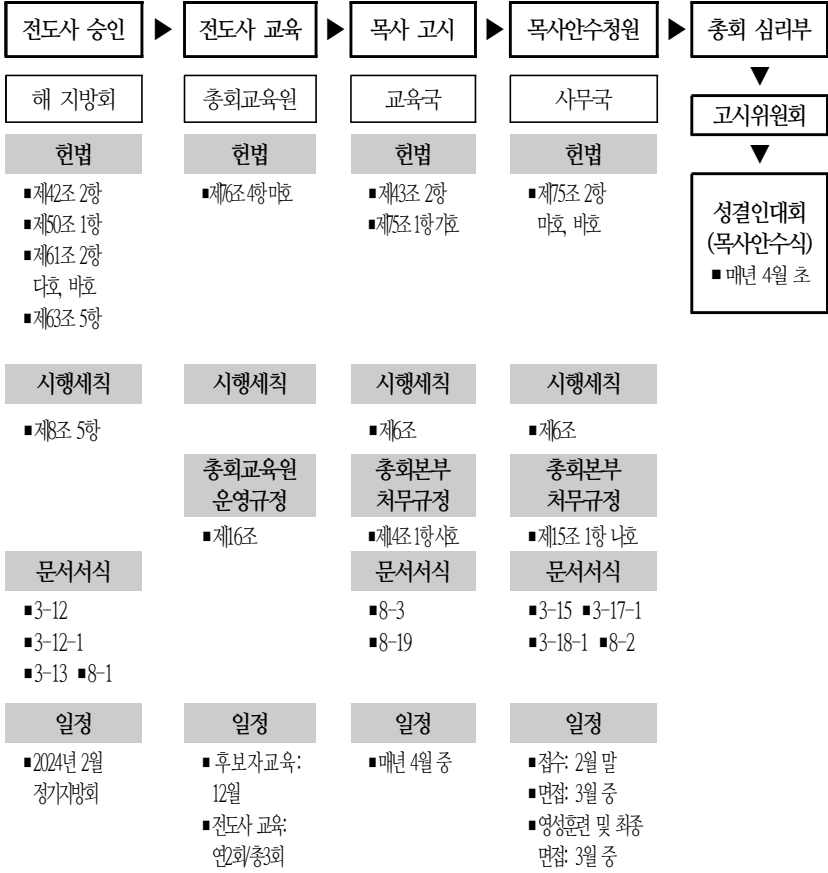
부서	담당자	직통	담당업무
총무실	문창국 총무	1001	교단행정 총괄
	정한초 팀장		총무실 총괄, 인사위
선교국 (8F)	국장	1041	선교국 총괄
	손주헌 팀장	1038	해외선교 부총괄 및 권역행정
	전영욱 팀장	1039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OMS
	석성규 팀장	11023	국내선교, 특수선교
	류호준 간사	1036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성결연맹
	정구성 간사	1093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및 교육
	신문섭 간사	1032	선교국 행정
	김희경 사무간사	1034	해외선교 재정
	이민지 사무간사	1033	선교국 재정
	안예은 사무간사	1021	국내선교 행정 및 재정
	임수현 사무간사	1031	선교국 행정
	■ 향존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 의회부서: 선교부(경목단, 교목단, 사회선교단), 군선교부(군목단), 농어촌부		
교육국 (7F)	강형규 국장	1061	교육국 총괄, 개발, 출판
	안용환 팀장	1052	역사, 보급, 유통, 스토어
	조미정 팀장	1054	행정, 재정, 장학회, 문준경, 유통
	강영아 팀장	1062	교육과정, 출판기획, 교재편집
	권미경 간사	1053	디자인, 출판, 교회음악부
	장주한 간사	1063	장년교재, 여름교재, 고시, 교육위
	김남선 간사	1065	교재개발, SNS, 홈페이지, 아태위 신학교육
	이재훈 간사	1067	청소년, 성칭, 홈페이지, 멀티부교재
	민지영 간사	1055	행사, 단행본, 디자인
	윤종훈	1051	사랑마루, SNS, 기타행정 및 재정
■ 향존위원회: 고시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 ■ 의회부서: 교육부, 청소년부, 교회음악부			

총회본부 /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부서	담당자	직통	담당업무
사무국 기획정무 (2F)		1014	사무국 총괄
	박지훈 팀 장	1013	기획정무 총괄, 임원회, 대외, 재판
	박양우 팀 장	1012	헌연위, 선관위, 법제부
	김효진 간 사	1011	기획정무팀 행정, 재정
	■ 항존위원회: 재판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의회부서: 공천부, 법제부		
사무국 행정민원 (1F)		1075	행정민원 총괄, 심리, 서무, 통제
	이철주 간 사	1074	행정, 전산, 전자문서, 포상, 감사
	이현정 간 사	1073	감사, CIS, 물품, 지방회 문서
	유길현 사무간사	1072	직인, 인사카드, 발급
	최수정 사무간사	1071	접수 및 발송, 증명서, 민원처리
	■ 항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 의회부서: 심리부, 서무부		
평신도국 (6F)	윤기중 국 장	1096	평신도국 총괄, 성결원
	김효종 팀 장	1099	평신도부, 사회복지부, 성결원
	조한나 사무간사	1100	행정, 재정, 평신도부, 기관
	■ 의회부서: 평신도부, 복지사업부		
경리과 (2F)	지선화 과 장	1106	경리업무 총괄
	한송이 간 사	1101	총회부분 담당
	이예솔 사무간사	1102	선교부분 담당
	홍가영 사무간사	1104	교육부분 담당
유지재단 성결회관	은호영 실 장	1112	행정총괄
	이영숙 간 사	1002	성결회관 행정, 재정
	박주빈 사무간사	1111	행정
총회교육원	김요한 팀 장	1122	총회교육원 총괄
교역자공제회	김진규 국 장	1165	교역자공제회 총괄
	문성선 팀 장	1163	행정, 재정 총괄
	이유미 사무간사	1161	행정, 재정

주요 민원사항 처리 절차

■ 전도사 승인부터 목사안수까지



성결인대회 (목사안수식)

- 매년 4월 초

■ 각종 증명서 발급

사무국 발급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수증명서(8-18) ■ 경력증명서(8-20) ■ 추천서(8-2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8-19) ■ 소속증명서(8-21) ■ 은행제출용 서류

유지재단 발급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제출용 서류 일체 ■ 은행 제출용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공제회 발급 서류 ■ 연금가입 증명서 ■ 연금환납 증명서

제120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현황 분석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단의 발전과 현황 분석

우리 교단은 매년 지교회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사무총회를 거쳐 정기지방회에 <교세 통계표>의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방회는 이를 취합하여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우리 교단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피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교세 통계표>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은, 지 교회의 발전과 교단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성결교회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교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확하게 배치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 본부가 분석하여 보고하는 한국 사회의 종교 현황과 교단의 현재 분석을 충실히 읽고 살핀다면 지교회의 전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지교회에서 보고한 교세 통계표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단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한 한계점은 분석에 있어 교단의 <교세 통계표>가 지교회와 지방회의 보고 내용만을 집계한 것으로 정확도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으며, 비전문가의 보고자료 입력 시 혹은 분석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소한 실수 등이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1. 교세의 변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교단의 교세 변화는 아래의 <표1>과 같다. 2015년 2,793개였던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2025년 현재 2,890개로 97개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 기간 교인 수는 491,397명에서 382,172명으로 줄었다. 교회학교 학생 수는 93,532명에서 55,816명으로 줄었다.

〈표 1〉 연도별 교회, 세례교인, 새신자, 교회학교, 교인수

연도	교회수	세례교인	새신자	교회학교	교인수
2015년	2,793개	319,914명	77,045명	93,532명	491,397명
2016년	2,813개	302,226명	73,627명	85,661명	461,514명
2017년	2,858개	301,048명	69,013명	84,392명	454,453명
2018년	2,845개	296,178명	61,472명	81,645명	439,295명
2019년	2,886개	292,955명	60,129명	77,844명	430,928명
2020년	2,897개	283,361명	46,462명	69,358명	399,181명
2021년	2,893개	282,172명	46,211명	62,581명	390,964명
2022년	2,895개	280,861명	46,373명	59,434명	386,668명
2023년	2,916개	280,093명	46,757명	58,923명	385,727명
2024년	2,914개	277,457명	45,231명	57,510명	380,422명
2025년	2,890개	277,783명	49,399명	55,816명	382,172명
2025-2015	97개	-42,131명	-27,646명	-37,716명	-109,225명
연평균증감	10개	-4,213명	-2,765명	-3,772명	-10,923명

가. 교회 수 변화

2015년도부터 10년간 우리 교단은 97개의 교회가 늘어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45개의 교회가 늘어 가장 많은 수가 늘었으며 2019년과 2015년에는 각각 41개와 40개 교회가 개척되었다. 반면 지난 한 해 동안 24개의 교회가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지방회마다 은퇴하는 교역자의 교회와 작은 교회를 합동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자립하도록 돕는 추세가 빈번해진 것 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국내 성결교회는 2,890개 교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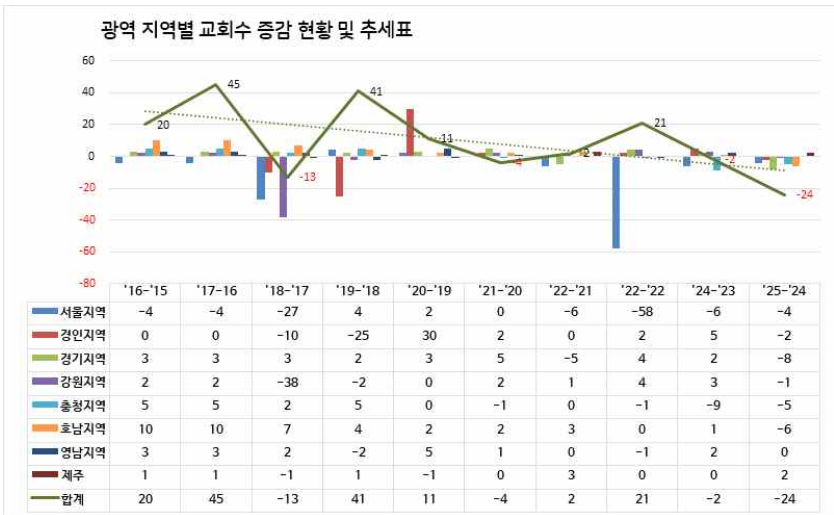
지난 3년간 광역 지역별 교회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지난 3년간 교회 수가 늘어난 지역은 경인, 강원, 영남, 제주의 4개 지역이었으며 줄어든 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호남지역이다. 충청과 서울이 각각 10개와 14개 교회가 줄어들었다. 2025년 현재 전체 교회 2,890개 중 충청지역

에 가장 많은 21.4%의 교회가 있으며, 서울과 호남에도 각각 21.1%와 15.2%의 교회가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 지난 3년간 광역지역 교회 수 변화표

	2023년	'24-'23	2024년	'25-'24	2025년	'25-'23	비중
서울지역	614개	-6개	608개	-4개	604개	-10개	21.1%
경인지역	357개	5개	362개	-2개	360개	3개	12.6%
경기지역	304개	2개	306개	-8개	298개	-6개	10.4%
강원지역	141개	3개	144개	-1개	143개	2개	5.0%
충청지역	627개	-9개	618개	-5개	613개	-14개	21.4%
호남지역	467개	1개	468개	-6개	462개	-5개	15.2%
영남지역	385개	2개	387개	0개	387개	2개	13.5%
제주지역	21개	0개	21개	2개	23개	2개	0.8%
합계	2,916개	-2개	2,914개	-50개	2,864개	-26개	100%

〈그래프 1〉 광역지역별 교회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지난 10년간 광역지역별 교회수 증감 추세는 위 〈그래프 1〉과 같은데 우하향 추세를 보인다.

1) 서울지역 교회 수 변화

〈표 3〉 서울지역 연도별 교회 수 변화표

지방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평균
서울중앙	112	112	77	75	75	75	72	71	73	71	71	-41 (-6)	-4.1 (-0.7)
서울동	51	51	52	51	51	49	47	46	48	47	46	-5	-0.5
서울서	101	102	102	103	108	108	107	108	107	107	104	3	0.3
서울남	76	77	77	76	72	71	71	70	70	71	71	-5	-0.5
서울북	92	91	94	96	94	97	98	45	44	44	43	-49 (-2)	-4.9 (-0.6)
서울강서	82	76	78	78	81	81	79	77	79	78	76	-6	-0.6
서울강남	63	63	63	65	65	63	63	65	68	66	64	1	0.1
서울강동	29	30	32	32	33	34	34	34	33	33	33	4	0.4
서울제일			38	41	40	41	42	39	39	38	44	6	0.8
서울								52	53	53	52	0	0.0
합 계	606	602	613	617	619	619	613	607	614	608	604	-2	-0.2

국가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도 북부에 해당하는 서울지역의 10개 지방회 교회 수는 2015년 606개에서 2025년 604개로 10년간 2개 교회가 줄어 교회 개척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방회의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회는 2015년 112개 교회에서 2025년 현재 71개 교회로 41개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와 분할로 인해 38개의 교회가 빠져나간 영향이 절대적이다. 분할 당시 서울중앙지방회의 교회 수는 77개였으나 2025년 현재 71개 교회로 6개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0.75개 씩 줄어든 것이다. 반면 서울제일지방회는 2017년 분할 당시 38개 교회가 보고되었으며, 2025년 현재 44개 교회로 연평균 0.6개 교회가 늘어났다.

서울동지방회는 2015년 51개 교회에서 2025년 46개 교회로 줄어들어 동기간 5개의 교회가 줄었고,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서지방회는 2015년 101개 교회에서 2025년 104개 교회로 지난 3개 교회가 개척되었다. 서울남지방회는 2015년 76개 교회에서 2025년 현재 71개 교회로 5개 교회가 줄었다. 2015년 92개 교회가 소속된 서울북지방회는 2022년도에 서울지방회와 분지방 하여 45개 교회가 되었고 2025년 현재 43개 교회가 보

고되었다. 서울지방회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강서지방회는 2015년 82개 교회에서 2025년 76개 교회로 6개 교회가 줄었으며, 서울강남지방회는 63개 교회에서 64개 교회로 동 기간 1개 교회가 늘어났다. 서울강동지방회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5년 29개 교회에서 2025년 33개 교회로 늘었다.

2) 인천지역 교회 수 변화

〈표 4〉 인천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평균
인천동	68	67	69	42	69	69	72	71	71	70	67	-1	-0.1
인천서	57	60	61	61	63	63	64	63	63	65	65	8	0.8
인천남	46	46	50	50	50	52	53	55	56	51	51	5	0.5
인천중앙	48	48	49	46	47	49	48	49	54	59	59	11	1.1
부 천	58	57	39	39	36	35	35	35	35	35	35	-23 (-4)	-2.3 (-0.5)
경 인	44	43	43	42	43	43	42	43	45	47	48	4	0.4
부 흥			30	36	38	37	34	34	33	35	35	5	0.6
합 계	321	321	341	316	346	348	348	350	357	362	360	39	3.9

인천지역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등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7개 지방회가 소속되어 있다. 2025년 현재 인천지역 전체의 교회수는 360개 교회로 2015년 321개에 비해 39개 교회가 늘어 최근 몇 년간 전국 8개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이는 연평균 3.9개씩 교회가 개척되어 연평균 12.2%p 성장하였다.

인천동지방회는 동기간 1개 교회가 줄어 68개에서 67개 교회로 줄었다. 인천서지방회는 57개 교회가 65개로 10년간 8개 교회가 늘어 연평균 0.8개 교회씩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천남지방회는 46개 교회가 51개 교회로 5개 교회가 늘었고, 인천중앙지방회도 2025년도 48개 교회에서 11개 교회가 늘어 지난해 59개 교회로 보고되었다. 이는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부천지방회로 동기간 23개 교회가 줄었는데, 2017년도 부흥지방회와의 분할에 따른 30개 교회가 이탈한 것을 고려하면 4개 교회가 줄어 2년마다 1개씩 교회가 폐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인지방

회는 44개 교회가 48개 교회로 4개 교회가 늘었으며, 부흥지방회는 30개 교회에서 35개 교회로 5개 교회가 늘 것으로 보고되었다.

3) 경기지역 교회 수 변화

서울 이남인 경기도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경기지역에는 6개 지방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2015년 287개 교회가 2025년 298개 교회로 10년간 11개 교회가 늘어 연평균 1.1개 교회가 신규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 경기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평균
경기동	45	45	44	45	46	47	47	48	49	51	51	6	0.6
경기중앙	43	46	50	50	47	47	44	42	41	43	44	1	0.1
경기남	68	68	67	66	66	67	68	67	66	65	65	-3	-0.3
경기	51	50	50	51	54	56	53	53	54	52	52	1	0.1
경기서	46	47	46	46	49	48	46	47	46	46	44	-2	-0.2
경서	34	34	36	37	36	38	40	45	48	49	42	8	0.8
합계	287	290	293	295	298	303	298	302	304	306	298	11	1.1

경기동지방회는 45개 교회가 51개 교회로 6개 교회가 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경기중앙지방회는 43개 교회에서 44개 교회로 1개 교회가, 경기지방회는 51개 교회에서 52개 교회로 1개 교회가 지난 10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서지방회는 32개 교회에서 42개 교회로 8개 교회가 늘었다. 반면 경기남지방회와 경기서지방회는 각각 68개 교회에서 65개 교회, 45개 교회에서 44개 교회로 3개 교회와 2개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4) 강원지역 교회 수 변화

〈표 6〉 강원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평균
강원동	47	47	48	47	46	46	46	48	47	49	49	2	0.2
강원서	87	89	50	49	50	50	51	51	51	51	50	-37 (0)	-3.7 (0.0)
강원			39	39	39	41	41	43	43	44	44	5	0.5
합계	134	136	137	135	135	137	138	142	141	144	143	9	0.9

행정구역상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강원지역은 3개 지방회가 소속되어 있다. 2015년 강원지역의 교회 수는 134개였으며, 지난 10년간 9개 교회가 늘어 143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원동지방회는 47개 교회에서 2개 교회가 늘었으며, 강원서지방회는 2015년 87개 교회가 2017년 강원지방회와 분할되며 50개 교회로 줄었고, 이후 51개 교회로 1개 교회가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1개 교회가 줄었다. 강원지방회는 2017년 분할 당시 39개 교회였으나 8년 후인 2024년 44개 교회로 5개 교회가 늘어 매년 0.5개 교회씩 늘었다.

5) 충청지역 교회 수 변화

〈표 7〉 충청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평균
충 북	44	45	44	44	44	43	42	42	40	38	38	-6	-0.6
청 주	71	74	73	74	72	71	71	71	71	65	69	-2	-0.2
충 청	59	60	60	59	59	58	57	57	56	57	55	-4	-0.4
충 서	103	103	104	104	105	105	106	106	106	108	107	4	0.4
충서중앙	59	59	59	59	59	61	61	61	61	60	60	1	0.1
대전동	70	70	71	72	73	72	71	69	71	71	69	-1	-0.1
대전서	49	48	48	48	48	48	49	49	49	49	45	-4	-0.4
대전중앙	48	49	49	50	50	50	50	50	50	49	49	1	0.1
충 남	70	68	68	69	68	69	69	69	69	69	69	-1	-0.1
세종공주	43	45	47	49	50	50	51	52	54	52	52	9	0.9
합 계	616	621	623	628	628	627	627	626	627	618	613	-3	-0.3

충청지역은 국가 행정구역상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단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충북지방회는 2015년 44개였던 교회가 지난해 38개 교회로 6개가 줄었으며, 청주지방회와 충청지방회도 각각 2개와 4개 교회가 줄어들었다. 충서지방회와 충청지방회는 동 기간 각각 103개교회, 59개 교회에서 107개, 60개교회로 늘어, 충서지방회는 4개, 충서중앙지방회는 1개 교회가 늘었다. 대전지역 3개 지방회 중 대전동지방회는 70개에서 69개, 대전서지방회는 49개에서 45개 교회로 각각 1개와 4개씩 줄었으나 대전중앙지방회는 1개 늘어난 49개 교회를 2025년에 보고하였다.

충남지방회도 1개 교회가 줄어 2015년 70개였던 교회수가 2025년 현재 69개 교회로 보고되었다. 세종공주지방회는 동 기간 43개에서 52개로 9개 교회가 늘어 인천중앙지방회에 이어 56개 지방회 중 두 번째 성장세를 보였다.

충청지역은 2015년 616개였던 교회 수가 2018년 628개까지 늘었으나 2024년 9개 교회가 줄어들며 성장세가 꺾였고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6) 호남지역 교회 수 변화

〈표 8〉 호남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평균
전 북	49	50	53	53	52	51	52	50	49	49	49	0	0.0
전 주	53	53	53	55	55	57	58	60	61	59	57	4	0.4
전북중앙	36	36	38	37	36	37	37	37	36	35	35	-1	-0.1
군 산	47	49	51	52	52	52	53	52	52	54	54	7	0.7
전남동	51	54	53	53	54	54	55	55	56	56	56	5	0.5
전남서	67	68	69	70	70	69	71	71	73	73	70	3	0.3
광 주	31	32	32	32	32	32	32	32	32	32	31	0	0.0
전 남	37	35	36	36	37	37	35	36	37	39	39	2	0.2
전남중앙	28	30	29	25	27	27	26	28	31	31	31	3	0.3
광주동	35	37	37	42	42	43	43	41	40	40	40	5	0.5
합 계	434	444	451	455	457	459	462	462	467	468	462	28	2.8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은 충청지역과 서울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2015년 434개 교회에서 2025년 현재 462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지방회는 지난 10년간 3개 교회가 늘 46개 교회에서 49개 교회가 되었으며, 전주지방회는 53개 교회에서 57개 교회로 4개 교회가 늘었다. 반면 전북중앙지방회는 호남지역 중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교회 수가 줄었는데 2015년 36개 교회에서 35개 교회로 1개 교회가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군산지방회는 2015년 47개였던 교회 수가 지난해 7개 늘어난 54개 교회가 되었으며, 전남동지방회와 전남서지방회는 51개, 67개 교회에서 56개, 70개 교회로 각각 5개, 3개 교회가 늘어났다. 광주지방회는 변함이 없었고 전남지방회는 37개 교회에서 39개 교회로, 2개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남중앙지방회는 2015년 28개 교회가 2025년 31개 교회

가 되었으며, 광주동지방회는 동 기간 35개 교회에서 5개 늘어난 40개 교회로 보고되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호남지역 교회 수의 증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체로 우상향 추세를 보인다. 전북지방회만 동 기간 교회 수가 줄었고, 다른 지방회는 모두 늘어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영남지역 교회 수 변화

경상남북도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영남지역은 2015년 376개 교회에서 11개 늘어난 387개 교회로 2024년 현재 보고하였다.

〈표 9〉 영남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평균
경 북	46	49	49	49	49	49	49	49	50	50	50	4	0.4
대 구	39	39	40	40	42	42	41	42	42	42	42	3	0.3
경 북 서	60	61	61	61	61	61	61	62	62	62	62	2	0.2
부 산 동	35	35	35	33	33	33	33	32	32	31	31	-4	-0.4
부 산 서	47	48	49	49	50	50	50	49	48	46	46	-1	-0.1
경 남	49	49	49	49	50	51	52	51	51	52	51	2	0.2
경 남 서	68	66	66	66	66	66	66	66	66	47	48	-20	-2.0
창원중앙										23	23	0	0.0
울 산	32	32	32	32	33	33	33	33	34	34	34	2	0.2
합 계	376	379	381	379	384	385	385	384	385	387	387	11	1.1

구체적으로 경북지방회는 46개 교회에서 4개 늘어난 50개 교회로, 대구지방회와 경북서지방회도 각각 39개 교회, 60개 교회에서 42개 교회, 62개 교회로 3개와 2개 교회씩 늘었으며, 경남지방회는 48개 교회에서 2개 늘어난 51개 교회가 2025년 현재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부산동지방회와 부산서지방회는 각각 4개 교회와 1개 교회가 줄어 35개 교회에서 31개 교회, 47개 교회에서 46개 교회이다. 2024년도에 창원중앙지방회와 분할된 2015년 68개에서 교회 수가 2025년 현재 경남서지방회 48개, 창원중앙지방회 23개로 71개 교회로 분지방 후 3개 교회가 늘어났다. 울산지방회도 2025년 현재 2015년 32개 교회에서 2개 교회가 늘어난 34개 교회로 보고하였다.

8) 제주지역 교회 수 변화

〈표 10〉 제주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평균
제주직할	19	20	19	20	19	19	22	22	21	21	23	4	0.4

2015년도 19개 교회를 보고한 제주지역은 2025년 현재 4개 교회가 늘어 23개 교회로 보고하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97개 교회, 9.7%p 증가하였는데, 교회 수 증가는 인천지역이 39개로 가장 많으며 28개의 호남지역과 11개의 경기와 영남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증가 비율로는 역시 제주지역이 21.1%p 증가하여 선두를 차지하였으며, 12.1.%p의 인천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동 기간 서울지역은 0.3%p가 감소하였고, 충청지역은 0.5%p 줄었다. 지난 2015년 이래 전체적으로는 교회 수가 3.5%p 늘었지만, 앞서 <그래프 1>에서 본 것처럼 그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표 11〉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15	증가비율
서울	606	602	613	617	619	619	613	607	614	608	604	-2	-0.3%
인천	321	321	341	316	346	348	348	350	357	362	360	39	12.1%
경기	287	290	293	295	298	303	298	302	304	306	298	11	3.8%
강원	134	136	137	135	135	137	138	142	141	144	143	9	6.7%
충청	616	621	623	628	628	627	627	626	627	618	613	-3	-0.5%
호남	434	444	451	455	457	459	462	462	467	468	462	28	6.5%
영남	376	379	381	379	384	385	385	384	385	387	387	11	2.9%
제주	19	20	19	20	19	19	22	22	21	21	23	4	21.1%
합계	2,793	2,813	2,858	2,845	2,886	2,897	2,893	2,895	2,916	2,914	2,890	97	3.5%

나. 교인 수 변화

그렇다면 교인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2025년 <교세 통계표>에 보고된 우리 교단의 교인 수는 총 382,172명인 것으로 합산되었다. 이는 지난해 380,422명에 비해 1,750명이 늘었으나 2015년 우리 491,397명에 비해 109,225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14년도 교인 수의 22.2%p에 해당하는 비율로 연평균 10,923명씩 줄어들고 있다. 아래 <그래프 2> 추세선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어 교인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교인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30,690명이 줄었다. 반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지역은 호남지역으로 2015년에 비해 31.1%p의 교인 감소율을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에 교인수가 각각 35,438명과 17,852명이 줄어든 것은 제 108년차 교단 총회(2014.05.27.~29.)에서 결의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의 영향이 크다. 이 두 해 전국 모든 지방회에서 교인 수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교단의 규모는 줄었지만, 실질 교인 수를 파악할 수는 있었다.

<표 12> 연도별 교인수 변화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5	167,338	48,883	40,844	19,337	94,560	64,707	53,582	2,146	491,397
'16	156,662	40,848	38,934	18,775	92,288	59,939	52,136	1,932	461,514
'17	151,083	44,132	36,818	18,628	90,241	59,286	52,383	1,882	454,453
'18	144,483	41,364	36,243	17,586	88,550	58,030	51,036	2,003	439,295
'19	140,570	40,442	35,682	17,903	88,207	57,058	49,036	2,030	430,928
'20	131,669	36,788	32,639	16,572	79,936	53,164	46,698	1,715	399,181
'21	130,979	37,144	31,241	16,215	79,243	50,103	44,307	1,732	390,964
'22	133,307	36,176	31,846	16,002	78,506	47,345	41,695	1,791	386,668
'23	134,427	36,084	32,350	16,022	77,349	47,121	40,709	1,665	385,727
'24	133,570	35,981	32,217	15,775	76,060	44,483	40,283	1,829	380,198
'25	136,648	36,692	32,074	15,250	76,392	44,600	39,420	1,922	382,998
증감	-30,690	-12,191	-8,770	-4,087	-18,168	-20,107	-14,162	-224	-108,399
평균	-3,069	-1,219.1	-877	-408.7	-1,816.8	-2,010.7	-1,416.2	-22.4	-10,839.9
증감률	-18.3%	-24.9%	-21.5%	-21.1%	-19.2%	-31.1%	-26.4%	-10.4%	-22.1%

〈그래프 2〉 광역지역별 교인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1) 서울지역 교인 수 변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지역의 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 13>과 같다. 2015년 35,381명의 교인을 보고한 서울중앙지방회는 지난 10년간 8,842명이 줄어 26,5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와 분지방 하며 11,714명의 교인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3,667명의 교인이 줄어 20,050명이었으나, 이후 6,489명이 늘어나 실제로는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중앙지방회는 연 평균 811명씩 늘어 32.4% 성장하였다.

서울동지방회는 2015년 8,642명의 교인을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는 5,24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명이 늘었으나 지난 10년간 3,39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25.0%p의 성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708명과 2,308명이 준 것은 앞서 이야기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후과(後果)로 지교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교인 명단을 대폭 정리한 것의 결과로 보인다.

서울서지방회는 2015년 32,905명의 교인에서 2025년 26,567명으로 6,338명이 줄어 전체 교인의 39.3%p가 줄었다. 2015년 30,752명이던 서울남지방

회의 교인수는 10.5%p에 해당하는 3,237명이 줄어 2025년 현재 27,515명으로 보고되었다.

〈표 13〉 서울지역 교인수 변화표

	서울중앙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울북	서울강서	서울강남	서울동	서울세일	서울
'15	35,381	8,642	32,905	30,752	18,381	16,011	18,026	7,240		
'16	32,568	6,334	31,298	31,158	17,931	15,057	14,884	7,432		
'17	20,050	6,281	31,883	30,703	15,813	14,337	13,824	6,478	11,714	
'18	19,731	6,239	30,063	30,185	14,726	15,241	9,863	6,821	11,614	
'19	21,460	6,330	27,585	29,390	14,097	13,769	9,713	6,582	11,644	
'20	20,497	5,969	25,326	27,183	12,579	13,363	8,897	6,313	11,542	
'21	20,912	5,713	24,482	26,721	13,089	13,113	9,417	6,194	11,338	
'22	21,597	5,648	25,331	27,185	5,227	13,147	9,461	6,132	11,793	7,786
'23	22,162	5,415	25,839	27,299	5,299	12,764	9,567	5,689	11,245	9,148
'24	23,524	5,224	26,594	27,548	5,252	12,495	9,768	5,117	10,761	7,287
'25	26,539	5,244	26,567	27,515	5,416	12,190	9,779	5,195	10,771	7,432
증감	-8,842 (6,489)	-3,398	-6,338	-3,237	-12,965 (189)	-3,821	-8,247	-2,045	-843	-354
평균	-884.2 (811)	-339.8	-633.8	-323.7	-1,296.5 (47)	-382.1	-824.7	-204.5	-84.3	-35.4
증감폭	-25.0% (32.4%)	-39.3%	-19.3%	-10.5%	-70.5% (3.6%)	-23.9%	-45.8%	-28.2%	-7.2%	-4.5%

2022년 서울지방회와 나뉜 서울북지방회는 2015년 18,381명이던 교인수가 70.5%가 줄어든 5,4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방회 분할 전 해인 2021년까지 서울북지방회는 5,368명의 교인이 줄어들어 7년간 연평균 767명씩 감소하였으나, 분할 해인 2022년 서울북지방회 5,227명과 서울지방회 7,786명, 총 13,013명으로 보고되어, 전년에 비해 76명만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3년간 서울북지방회는 189명의 교인이 늘어 2025년에는 5,416명을 교인 수로 보고하였다.

2015년 서울강서지방회의 교인 수는 16,011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12,190명으로 지난 10년간 3,821명, 23.9%p 감소하였다. 서울강남지방회도 동 기간 교인 수가 18,026명에서 9,779명으로 45.8%에 해당하는 8,247명이 줄었다. 서울강남지방회의 교인 수는 2016년에 전년 대비 3,142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7.4%에 해당하는 숫자로, 역시나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서울강동지방회는 7,240명에서 5,195명으로 전체 교인

수의 28.2%에 해당하는 2,045명이 지난 10년간 감소하였다.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의 교인 수는 11,714명이었으며 2025년 현재 10,771명으로 843명, 8.1%p 감소하였으며, 서울지방회는 2022년 분할될 당시 7,786명이던 교인수가 7,432명으로 354명, 4.5%p가 줄어들었다.

2023년부터 3년간 서울지역의 교인 수는 134,427명에서 136,648명으로 2,221명이 늘었으며 2025년에는 전년에 비해 3,078명이 늘었다.

2) 인천지역 교인 수 변화

인천지역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인 수 변화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교인 수가 2015년 48,883명이던 인천지역은 2025년 현재 36,692명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교인수의 24.9%p에 해당하는 12,191명이 줄었다.

<표 14> 인천지역 교인 수 변화표

	인 천 동	인 천 서	인 천 남	인천중앙	부 천	경 인	부 흥
'15	10,951	12,275	10,607	4,811	8,036	2,203	
'16	10,219	12,190	9,976	3,853	2,627	1,983	
'17	10,121	11,463	9,560	3,360	2,308	2,682	4,638
'18	11,038	10,841	8,848	3,085	2,195	1,814	3,543
'19	9,908	10,763	8,717	3,030	1,965	1,820	4,239
'20	8,844	9,422	8,033	2,884	1,840	1,681	4,084
'21	9,256	9,370	7,905	2,936	1,957	1,693	4,027
'22	9,247	8,839	7,798	2,782	2,001	1,656	3,853
'23	9,514	8,829	7,777	2,645	2,251	1,711	3,357
'24	9,166	8,685	7,779	3,000	2,638	1,624	3,089
'25	9,238	8,955	7,872	3,190	2,720	1,624	3,093
증감	-1,713	-3,320	-2,735	-1,621	-5,316 (412)	-579	-1,545
평균	-171.3	-332	-273.5	-162.1	-531.6 (52)	-57.9	-154.5
증감폭	-15.6%	-27.0%	-25.8%	-33.7%	-66.2% (17.9%)	-26.3%	-33.3%

인천동지방회의 2015년도 교인 수는 10,951명이었으며,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71명씩 줄어, 지난해 교인 수가 2015년 대비 15.6%p가 감소한 9,238명으로 보고되었으나 지난해보다는 72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인천서지방회의

2015년도 교인 수는 12,275명이었으나 27.0%p가 감소하여 8,955명으로 보고되었다. 인천남지방회도 2015년 10,607명 대비 25.8%p 감소한 7,872명으로 2025년 교인 수를 보고하였다. 인천중앙지방회는 2015년 보고된 4,811명 교인 수의 33.7%에 해당하는 1,621명이 감소한 3,190명의 교인을 2025년도 교세통계로 보고하였다. 인천의 4개 지방회가 모두 전년에 비해 소폭이나마 교인수가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10년간 인천지역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방회는 부천지방회로 전체 교인수의 66.2%가 줄었으며, 경인지방회도 동 기간 26.3%가 감소하였다. 부천지방회는 2015년도 8,036명으로 보고한 교인수를 2016년에는 2,627명으로 전년 대비 67.3%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조치로 보기에 너무 감소 폭이 크다 할 수 있다. 다만, 2017년도 부흥지방회와 분할된 것을 고려할 때 이 기간 행정적인 조치에 따른 결과로 일부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분지방 후 부천지방회는 8년간 17.9% 성장하여 412명의 교인이 늘었는데 이는 매년 52명의 교인이 늘어난 것이다.

2015년도 경인지방회의 교인수는 2,203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26.3%p가 감소한 1,624명을 보고하였고, 2017년 분지방한 부흥지방회는 4,638명의 교인 수가 8년 후인 2025년에는 3,093명으로 33.3%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천지역의 교인수 감소 폭은 전체 8개 광역지역 중 3위에 해당하며 대체로 상회비 납부 방식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경기지역 교인 수 변화

경기지역의 6개 지방회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 15>와 같다. 2015년 40,844명이던 경기지역 교인 수는 2025년 현재 32,074명으로 파악되어 동 기간 8,770명, 전체 경기지역 교인의 51.5%p가 감소하였다.

경기동지방회의 2015년 교인 수는 7,015명이었으나 지난 10년간 전체 27.8%p에 해당하는 1,952명이 감소하여 2025년에는 5,063명이라 보고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27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중앙지방회는 4,158명이던 2015년 교인수의 0.2%p에 해당하는 단 9명만이 감소한 4,149명으로 보고하였는데, 2024년 3,983명에서 166명이 늘어난 결과이다. 경기남지방회 역시 2015년

10,035명이던 교인수가 26.5%p, 2,655명이 감소하여 7,380명으로 보고되었다. 이 역시 미미하나마 전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경기지방회는 8,177명이던 2015년도 교인수가 지난 10년간 2,173명이 줄어 2025년 현재 6,004명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지방회와 경서지방회도 지난 10년간 교인수가 각각 22.0%p와 4.7%p씩 감소하여 2024년 현재 7,332명과 2,105명으로 나타났다.

〈표 15〉 경기지역 교인 수 변화표

	경 기 동	경기중앙	경 기 남	경 기	경 기 서	경 서
'15	7,015	4,158	10,035	8,177	9,448	2,011
'16	6,335	3,973	9,849	7,273	9,523	1,981
'17	6,185	3,910	8,311	7,336	9,113	1,963
'18	5,703	4,031	8,516	6,813	9,282	1,898
'19	5,624	3,874	8,537	7,055	8,815	1,777
'20	5,092	3,909	7,322	6,035	8,541	1,740
'21	5,010	3,602	7,016	6,055	7,568	1,990
'22	5,143	3,685	7,206	5,991	7,240	2,581
'23	4,893	3,983	7,368	6,044	7,211	2,851
'24	4,936	3,983	7,288	5,922	7,332	2,756
'25	5,063	4,149	7,380	6,004	7,373	2,105
증 감	-1,952	-9	-2,655	-2,173	-2,075	94
평 균	-195.2	-0.9	-265.5	-217.3	-207.5	9.4
증감폭	-27.8%	-0.2%	-26.5%	-26.6%	-22.0%	4.7%

지난 3년간 경기지역의 전체 교인수 변화를 살펴보면, 2023년 32,350명이던 교인 수가 32,074명으로 276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24년에 133명이, 2025년에는 143명이 줄어 위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지역의 교인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강원지역 교인 수 변화

강원지역의 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 16〉과 같다. 2014년 21,972명으로 보고 된 강원지역 교인 수는 2024년 6,197명이 줄어든 15,775명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전체 교인 수의 28.2%p가 줄어든 상황이다.

강원동지방회는 2015년도 교인수가 6,981명에 비해 33.6%p가 준 4,637명으로 2025년도 교인 수를 보고하였다. 강원서지방회 또한 12,356명이던 2015년의 교인수에서 47.0%p가 줄어든 6,548명으로 2024년 교인 수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총회비 세입구조 변경’에 따른 교인 수 정정과 더불어 2017년도에 실시된 강원지방회와의 분지방 여파로 파악이 된다. 분할 전인 2016년도 강원서지방회의 교인수는 12,176명이었는데, 분할 당시 강원서지방회는 7,650명, 강원지방회는 4,546명을 보고하여 전년에 비해 20명만이 감소한 상황이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서지방회의 교인수는 전체의 14.4%p에 해당하는 1,102명이 줄었고 동 기간 강원지방회는 10.6%p에 해당하는 481명이 줄어 2024년 4,065명으로 교인 수를 보고하였다.

(표 16) 강원지역 교인 수 변화표

	강 원 동	강 원 서	강 원
'15	6,981	12,356	
'16	6,599	12,176	
'17	6,432	7,650	4,546
'18	6,080	7,073	4,433
'19	6,058	7,370	4,475
'20	5,464	6,850	4,258
'21	5,288	6,842	4,085
'22	5,219	6,598	4,185
'23	5,074	6,640	4,308
'24	4,785	6,735	4,255
'25	4,637	6,548	4,065
증감	-2,344	-5,808 (-1,102)	-481
평균	-234.4	-580.8 (-138)	-48.1
증감폭	-33.6%	-47.0% (-14.4%)	-10.6%

5) 충청지역 교인 수 변화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인이 등록된 충청지역은 2015년 94,560명의 교인 수가 2025년 현재 218,168명이 줄어든 76,392명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 교인의 19.2%p가 줄었으나, 2024년에 비해서는 332명이 늘었다.

충청지역의 각 지방회 교인 수 증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북지방회는 4,300명이던 2015년 교인 수가 12.8%p 감소하여 3,751명이 보고되었는데 2024년에 비해 84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청주지방회는 2015년 11,183명에서 18.8%p 감소한 9,103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역시나 지난해에 비해 129명이 늘었다. 충청지방회는 전체 충청지역 10개 지방회 중 교인 수 감소율이 가장 낮

은 1.2%p를 기록했는데, 이는 91명이 줄어 2015년 7,557명에서 2025년 7,466명으로 보고되었다. 충서지방회는 2015년 21,353명에서 17.9%p 감소한 17,532명을 보고하였고, 충서중앙지방회 또한 동 기간 8,104명의 교인에서 23.2% 줄어든 6,220으로 보고하였다.

〈표 17〉 충청지역 교인 수 변화표

	충 북	청 주	충 청	충 서	충서중앙	대전동	대전서	대전중앙	충 남	세종공주
'15	4,300	11,183	7,557	21,353	8,104	10,211	6,779	8,832	10,719	5,522
'16	4,112	11,800	7,194	21,322	7,688	9,252	6,745	8,144	10,446	5,585
'17	4,226	11,085	6,628	21,234	7,245	9,028	6,606	8,399	9,996	5,794
'18	4,236	10,185	6,494	21,692	7,042	8,168	6,513	8,246	10,247	5,727
'19	4,201	10,495	6,587	21,699	7,301	7,778	6,485	8,208	9,708	5,745
'20	3,848	10,254	6,001	17,218	6,524	6,892	6,213	7,949	9,707	5,330
'21	3,779	10,274	6,715	17,120	6,619	6,751	5,789	8,015	9,077	5,104
'22	3,746	10,334	6,870	16,929	6,441	6,605	5,979	7,958	8,638	5,006
'23	3,762	9,952	6,836	17,093	6,487	6,445	5,657	7,903	8,464	4,750
'24	3,667	8,974	7,414	17,235	6,196	6,024	5,682	7,627	8,414	4,827
'25	3,751	9,103	7,466	17,532	6,220	5,981	5,666	7,615	8,336	4,722
증감	-549	-2,080	-91	-3,821	-1,884	-4,230	-1,113	-1,217	-2,383	-800
평균	-54.9	-208	-9.1	-382.1	-188.4	-423	-111.3	-121.7	-238.3	-80
증감률	-12.8%	-18.6%	-1.2%	-17.9%	-23.2%	-41.4%	-16.4%	-13.8%	-22.2%	-14.5%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전동지방회와 대전서지방회 대전중앙지방회는 2015년 도 교인 수를 각각 10,211명과 6,779명, 8,832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지난 10년간 대전동지방회는 41.4%p, 대전서지방회는 16.48%p, 대전중앙지방회는 13.8%p가 줄어 2025년 현재 5,981명, 5,666명, 7,615명으로 보고하였다.

충남지방회의 교인 수는 2015년 10,719명에서 2025년 8,336명으로 22.2%p에 해당하는 2,383명이 감소하였고, 세종공주지방회도 2015년 5,522명에서 800명, 14.5%p 감소한 4,722명을 2025년도 교인 수로 보고하였다.

6) 호남지역 교인 수 변화

2025년 보고된 호남지역 전체 교인 수는 44,600명이다. 2015년에 보고된 교인 수는 64,707명으로 20,107명, 전체 교인 수의 31.3%가 감소하여 전체 8

개 광역지역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호남지역 교인 수 변화표

	전 북	전 주	전북중앙	군 산	전남동	전남서	광 주	전 남	전남중앙	광주동
'15	8,551	19,057	5,854	9,356	5,360	5,157	3,269	3,001	2,116	2,986
'16	7,600	18,121	5,062	9,232	4,940	4,366	3,215	2,651	1,814	2,938
'17	7,601	18,301	5,348	8,777	4,748	4,302	2,762	2,839	1,872	2,736
'18	7,063	18,648	5,261	7,980	4,732	4,476	2,744	2,642	1,621	2,863
'19	7,055	18,644	5,040	7,799	4,520	4,378	2,685	2,623	1,609	2,705
'20	6,552	17,624	4,585	7,201	4,403	3,842	2,461	2,422	1,515	2,559
'21	6,400	15,455	4,303	7,002	4,281	4,037	2,290	2,342	1,546	2,447
'22	5,905	13,400	4,266	7,196	3,936	4,191	2,275	2,242	1,427	2,507
'23	6,552	13,488	4,185	7,052	3,828	3,940	2,185	2,024	1,601	2,266
'24	6,245	11,609	3,964	7,129	3,732	3,981	2,007	2,005	1,564	2,247
'25	5,931	11,051	3,772	8,173	3,779	3,998	2,275	1,995	1,556	2,070
증감	-2,620	-8,006	-2,082	-1,183	-1,581	-1,159	-994	-1,006	-560	-916
평균	-262	-800.6	-208.2	-118.3	-158.1	-115.9	-99.4	-100.6	-56	-91.6
증감률	-30.6%	-42.0%	-35.6%	-12.6%	-29.5%	-22.5%	-30.4%	-33.5%	-26.5%	-30.7%

전북지방회가 보고한 2015년 교인 수는 8,551명이었으며, 2025년에는 30.6%p가 줄어든 5,981명을 보고하였다. 전북지방회는 2015년에는 전년 대비 959명이, 2016년에는 951명이 줄었는데 역시나 상회비 납부 구조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호남지역에서 가장 큰 지방회인 전주지방회는 2015년 19,057명이던 교인이 2025년 8,006명이 줄어 11,051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42.0%p가 감소한 것으로 호남지역 10개 지방회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7,455명이 감소하여 28%의 교인이 줄어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총회비 세입구조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2016년에는 936명이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북중앙지방회의 2015년 교인 수는 5,854명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208명 정도 감소하여 2025년 현재 3,772명, 35.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356명이던 군산지방회의 2015년 교인 수도 1,183명, 12.6% 감소하여 2025년 현

재 8,173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24년 7,129명에서 1,044명이 는 수치이기도 하다.

목포와 신안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동지방회와 전남서지방회는 각각 2015년 5,360명, 5,157명이던 교인 수가 29.5%p와 22.5%p씩 감소하여 2025년 현재 3,779명과 3,987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2024년에 비해서는 각각 47명과 17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전남중앙지방회도 2,116명이던 교인 수가 1,556명으로 26.5% 감소하였다.

광주지방회의 2025년 현재 교인 수는 2,275명으로 2015년 대비 30.4%p가 감소하였고 광주동지방회는 2,986명에서 2,070명으로 30.7%가 줄어들었다.

호남지역 가장 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전남지방회는 2015년 3,001명이던 교인 수가 2025년 현재 1,995명으로 33.5%p가 줄어 전주지방회 다음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 영남지역 교인 수 변화

영남지역의 2025년 전체 교인 수는 39,420명으로, 지난 2015년 보고한 53,582명에서 14,16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26.4%p가 감소한 것이다.

경북지방회는 2015년 8,029명에서 2025년 6,921명으로 13.8%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대구지방회는 3,787명에서 2,732명으로 27.9%가 줄어들었다. 경북서지방회의 교인수는 6,056명에서 4,805명으로 20.7%가 줄었다.

부산동지방회와 부산서지방회는 각각 2015년 4,464명과 9,139명에서 2025년 2,692명, 6,682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39.7%p, 26.9%p씩 감소한 것이다. 2015년 경남지방회의 교인 수는 11,209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7,437명으로 33.7%가 줄었다.

2024년에 창원중앙지방회가 분지방한 경남서지방회의 2015년 교인 수는 7,172명이었다. 2024년에 분지방 당시 경남서지방회는 4,139명, 창원중앙지방회는 1,557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각각 4,194명과 1,294명을 보고하였다. 경남서지방회는 지방회 분할 후 55명이 늘었으나, 창원중앙지방회는 263명이 줄었다. 울산지방회는 2015년의 교인 수 3,726명에서 1,063명, 28.5%p가 감소한 2,663명을 2025년도에 보고하였다.

〈표 19〉 영남지역 교인 수 변화표

	경 북	대 구	경 북 서	부 산 동	부 산 서	경 남	경 남 서	창원중앙	울 산
'15	8,029	3,787	6,056	4,464	9,139	11,209	7,172		3,726
'16	8,048	3,738	5,845	4,149	8,711	10,922	6,758		3,965
'17	8,653	3,612	5,977	4,092	8,553	11,042	6,614		3,840
'18	8,700	3,270	6,101	3,598	8,176	10,898	6,359		3,934
'19	8,490	3,344	5,894	3,503	8,242	10,167	6,005		3,391
'20	7,974	3,298	5,412	3,116	7,656	9,969	5,864		3,409
'21	8,009	3,101	5,338	3,134	7,449	8,605	5,763		2,908
'22	6,218	2,952	5,155	2,891	7,455	8,841	5,691		2,492
'23	6,296	2,987	4,846	2,806	7,147	8,433	5,530		2,664
'24	6,763	2,875	4,956	2,767	7,034	7,544	4,139	1,557	2,648
'25	6,921	2,732	4,805	2,692	6,682	7,437	4,194	1,294	2,663
증감	-1,108	-1,055	-1,251	-1,772	-2,457	-3,772	-2,978 (55)	-263	-1,063
평균	-110.8	-105.5	-125.1	-177.2	-245.7	-377.2	-297.8 (28)	-26.3	-106.3
증폭	-13.8%	-27.9%	-20.7%	-39.7%	-26.9%	-33.7%	-41.5% (0.8%)	-16.9%	-28.5%

8) 제주지역 교인 수 변화

제주직할지방회의 2015년 교인 수는 2,146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10.4%가 줄어든 1,922명으로 연평균 22.4명씩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최근 3개년간 광역지역별 교인 수 변화

최근 3년간 지역별 교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 20〉과 같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지역의 교인 수는 134,427명에서 136,648명으로 3,078명이 늘어나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 교인 수가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2,328명, 2023년에는 1,120명의 교인이 늘었다. 2024년에는 857명의 교인이 줄어 상승세가 멈추는 듯하였으나 지난해 크게 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2023년도 교인 수는 36,084명이었는데, 지난 3년간 608명의 교인이 늘어났다. 2024년에는 전년에 비해 103명이 줄었으나 2025년에는 711

명이 늘어 서울지역과 함께 1.7% 성장하였다.

(표 20) 최근 3년간 광역지역별 교인 수 변화표

	2023	2024	2025	'24-'23	'25-'24	'25-'23	증감률	평균
서울지역	134,427	133,570	136,648	-857	3,078	2,221	1.7%	1,110.5
인천지역	36,084	35,981	36,692	-103	711	608	1.7%	304.0
경기지역	32,350	32,217	32,074	-133	-143	-276	-0.9%	-138.0
강원지역	16,022	15,775	15,250	-247	-525	-772	-4.8%	-386.0
충청지역	77,349	76,060	76,392	-1,289	332	-957	-1.2%	-478.5
호남지역	47,121	44,483	44,600	-2,638	117	-2,521	-5.4%	-1,260.5
영남지역	40,709	40,283	39,420	-426	-863	-1,289	-3.2%	-644.5
계 주	1,665	1,829	1,922	164	93	257	15.4%	128.5
합 계	385,727	380,198	382,998	-5,529	2,800	-2,729	-0.7%	-1,364.5

경기지역 교인수는 2023년 32,350명에서 매년 평균 138명씩 줄어 2025년에는 32,074명이 되어 0.9%p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강원지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86명이 줄었으며, 동 기간 충청지역은 957명이 감소하였다. 호남지역 교인수는 지난 3년간 2,521명이, 영남지역은 1,289명이 줄었는데 각각 5.4%p, 3.2%p 감소한 수치이다. 제주지역은 257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여 15.4%p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 세례교인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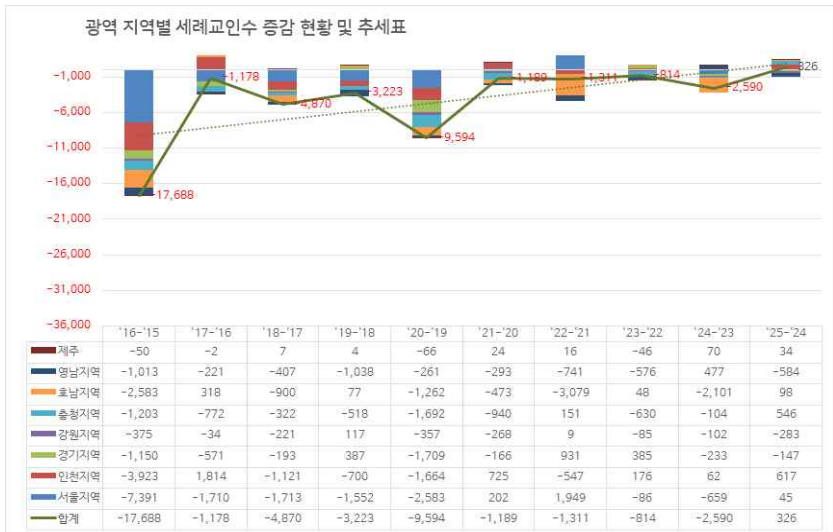
교단 헌법 제35조 1항은 '세례교인으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19세 이상 된 자'를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례교인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점에서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세례교인은 총회비의 기준점 중 하나로 총회의 세입을 원활히 하여 더욱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새신자로 들어온 교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향후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기본 과정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교인 수의 확보는 교회의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2015년도부터 2025년까지

우리 교단의 세례교인 수의 변화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연도별 지역별 세례교인수 변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5	106,850	32,197	25,865	13,851	60,872	44,117	34,849	1,313	319,914
'16	99,459	28,274	24,715	13,476	59,669	41,534	33,836	1,263	302,226
'17	97,749	30,088	24,144	13,442	58,897	41,852	33,615	1,261	301,048
'18	96,036	28,967	23,951	13,221	58,575	40,952	33,208	1,268	296,178
'19	94,484	28,267	24,338	13,338	58,057	41,029	32,170	1,272	292,955
'20	91,901	26,603	22,629	12,981	56,365	39,767	31,909	1,206	283,361
'21	92,103	27,328	22,463	12,713	55,425	39,294	31,616	1,230	282,172
'22	94,052	26,781	23,394	12,722	55,576	36,215	30,875	1,246	280,861
'23	93,966	26,957	23,779	12,637	54,946	36,263	30,299	1,200	280,047
'24	93,307	27,019	23,546	12,535	54,842	34,162	30,776	1,270	277,457
'25	93,352	27,636	23,399	12,252	55,388	34,260	30,192	1,304	277,783
증감	-13,498	-4,561	-2,466	-1,599	-5,484	-9,857	-4,657	-9	-42,131
평균	-1,349.8	-456.1	-246.6	-159.9	-548.4	-985.7	-465.7	-0.9	-4,213.1
증감률	-12.6%	-14.2%	-9.5%	-11.5%	-9.0%	-22.3%	-13.4%	-0.7%	-13.2%

<그래프 3> 광역지역별 세례교인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2015년 현재 319,914명인 우리 교단의 세례교인 수는 2025년 277,783명으로 보고되어 동기간 지난 10년간 42,131명, 13.2%p이 세례교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인 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제108년차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의 영향으로 허수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5,133명과 17,688명이 줄어든 것이다.

1) 서울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서울지역 세례교인 수는 2015년 106,850명에서 12.6%p인 13,498명이 줄어든 93,352명으로 보고되었는데 10개 지방회별 세례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2〉 서울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서울중앙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울북	서울서	서울남	서울동	서울제일	서울
'15	20,264	6,865	21,413	21,501	10,206	11,576	10,236	4,789		
'16	20,200	4,648	20,474	20,192	9,356	10,280	9,461	4,848		
'17	13,361	4,550	20,406	19,699	9,205	10,025	9,015	4,516	6,972	
'18	13,588	4,572	19,234	19,239	9,203	10,167	7,702	4,644	7,687	
'19	13,365	4,724	19,589	18,707	8,468	9,875	7,642	4,505	7,609	
'20	13,409	4,494	19,164	18,056	7,735	9,647	7,285	4,420	7,691	
'21	13,546	4,437	18,851	18,041	8,421	9,804	7,688	4,412	6,903	
'22	14,092	4,425	19,536	18,120	4,405	9,994	7,616	4,515	6,102	5,247
'23	14,248	4,326	19,809	18,131	4,404	9,965	7,644	4,156	6,006	5,277
'24	14,503	4,167	20,215	18,355	4,411	9,666	7,679	4,011	5,779	4,491
'25	15,091	4,206	19,931	18,401	4,407	9,232	7,648	4,100	5,815	4,521
증감	-5,173 (1,730)	-2,659	-1,482	-3,100	-5,799 (2)	-2,344	-2,588	-689	-1,872	-726
평균	-517.3 (216)	-265.9	-148.2	-310	-579.9 (1)	-234.4	-258.8	-68.9	-187.2	-72.6
증감률	-25.5% (12.9%)	-38.7%	-6.9%	-14.4%	-56.8% (0.0%)	-20.2%	-25.3%	-14.4%	-26.9%	-13.8%

서울중앙지방회는 2015년 20,264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025년 7,303명이 줄어 15,901명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25.5%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와 나뉘며 6,102명의 세례교인 빠져나갔는데, 당시 14,092명이던 세례교인 수와 비교하면 1,730명이 늘어 12.9%p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동지방회는 2015년에 보고한 6,865명의 세례교인 수의 38.7%p가 줄어든 4,206명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서울지역 10개 지방회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인데, 2015년 823명, 2016년 2,217명이 준 것으로 보고하여 제108년차 교단 총회의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서지방회의 2015년 세례교인 수는 21,413명으로 서울남지방회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6.9%p 감소한 19,931명으로 교단 내에서 세례교인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4년도에 세례교인수가 2만명이 넘는다고 보고한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가 유일했으나 2025년에는 한 개 지방회도 없다. 1만 명이 넘는 세례교인 수를 보고한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와 함께 서울중앙지방회, 서울남지방회 그리고 충서지방회 단 4개뿐이다.

서울남지방회는 2015년 21,501명의 세례교인을 보고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회였으나 지난 10년간 그 수가 14.4%p 줄어 2025년 18,401명으로 2위로 보고되었고, 서울북지방회는 10,206명이던 2015년 세례교인 수가 2025년에는 4,407명으로 56.8%p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2022년 서울지방회와 나뉜 영향이 큰 것으로 2022년 당시 서울북지방회 세례교인 수는 4,405명이고 서울지방회 세례교인 수는 5,247명으로 두 지방회의 합은 2015년 서울북지방회 세례교인 수에 비해 554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었다. 2022년 이후 서울북지방회는 2명의 세례교인이 늘었으며, 서울지방회는 726명이 줄어, 13.8%p의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강서지방회는 11,576명이던 2015년에 비해 20.2%p 줄어든 9,232명의 세례교인을 보고하였는데 역시나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가 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남지방회는 2015년에 10,236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025년 2,588명이 줄어든 7,648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25.3%p가 감소한 것이다. 서울강동지방회도 2015년에 비해 14.4%p가 줄어든 4,100명을, 서울제일지방회는 분지방이 된 2017년에 비해 26.9%p가 감소한 5,815명으로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였다.

2) 인천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지난해 인천지역 세례교인 수는 27,636명으로 2015년에 비해 14.2%p인 4,561명이 감소하였다. 인천지역 7개 지방회의 지난 10년간 세례교인 수의 변화는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인천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인 천 동	인 천 서	인 천 남	인천중앙	부 천	경 인	부 흥
'15	7,605	9,212	7,011	3,353	3,975	1,041	
'16	6,962	8,676	6,885	2,806	1,739	1,206	
'17	6,852	8,414	6,450	2,333	1,619	2,005	2,415
'18	7,634	8,018	6,279	2,085	1,567	1,207	2,177
'19	6,819	8,023	6,299	2,032	1,444	1,231	2,419
'20	6,485	7,074	6,044	2,051	1,416	1,213	2,320
'21	6,883	7,279	6,129	2,070	1,460	1,227	2,280
'22	6,820	7,016	6,006	2,001	1,555	1,218	2,165
'23	6,928	7,032	5,835	2,088	1,727	1,248	2,099
'24	6,940	6,867	5,623	2,331	2,001	1,227	2,030
'25	7,025	6,999	5,762	2,482	2,125	1,234	2,009
증감	-580	-2,213	-1,249	-871	-1,850	193	-406
평균	-58	-221.3	-124.9	-87.1	-185	19.3	-40.6
증폭	-7.6%	-24.0%	-17.8%	-26.0%	-46.5%	18.5%	-16.8%

인천동지방회의 세례교인 수는 7,605명으로 보고된 2015년 보다 7.6%p가 줄어 지난해 7,02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에 인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서지방회도 9,212명, 24.0%p나 줄어 든 6,999명으로 보고되어 인천동지방회에 수위를 내주게 되었다. 2015년 7,011명이던 인천남지방회는 17.8%p에 해당하는 1,249명이 줄어든 5,762명으로 2025년도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였으며, 인천중앙지방회는 2015년도에 비해 26.0%p가 줄어든 2,482명을 보고하였는데, 2015년에 전년에 비해 1,861명의 세례교인이 감소하여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천지방회는 2015년 3,975명의 세례교인을 보고하였으나 지난해는 2,125명을 보고하여 46.5%p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20년 146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감소 폭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방회는 1,041명이던 2015년도 세례교인 수가 2025년에는 1,234명으로 있

다. 이는 인천지역의 유일한 성장세로 10년간 18.5%p, 193명의 세례교인이
는 것이다. 2017년 분할된 부흥지방회는 2,415명의 세례교인이 7년 동안 406
명이 줄어 2025년에는 2,009명으로 보고하였다.

3) 경기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경기지역 2015년도 세례교인은 모두 25,865명이었으나, 10년 후인 2025년
현재 23,399명으로 전체 세례교인의 9.5%p인 2,466명이 줄었다.

〈표 24〉 경기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경 기 동	경기중앙	경 기 남	경 기 서	경 기 서	경 서
'15	4,804	2,890	6,333	5,308	5,268	1,262
'16	4,407	2,805	5,947	5,029	5,260	1,267
'17	4,331	2,801	5,694	5,248	4,786	1,284
'18	4,058	2,844	5,742	4,850	5,246	1,211
'19	4,106	2,850	5,975	4,956	5,241	1,210
'20	3,816	2,630	5,285	4,493	5,203	1,202
'21	3,881	2,733	5,201	4,568	4,564	1,516
'22	4,024	2,831	5,384	4,558	4,573	2,024
'23	3,823	2,866	5,498	4,582	4,728	2,282
'24	3,885	2,866	5,370	4,486	4,760	2,179
'25	3,932	3,049	5,469	4,509	4,707	1,733
증감	-872	159	-864	-799	-561	471
평균	-87.2	15.9	-86.4	-79.9	-56.1	47.1
증폭	-18.2%	5.5%	-13.6%	-15.1%	-10.6%	37.3%

경기동지방회는 2015년 4,804명이던 세례교인이 지난해 3,932명으로
18.2%p가 감소하였고, 경기중앙지방회는 2,890명에서 3,049명으로 5.5%p 늘
었다. 2015년 당시 경기지역에서 세례교인 수가 가장 많던 경기남지방회
6,333명이 5,3469으로 13.6%p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5년도 경기지
방회는 2015년에 비해 15.1%p 줄어든 4,509명을 세례교인 수로 보고하였고,
경기서지방회도 2015년에 비해 10.6%p, 561명이 준 4,707명을 보고하였다.
반면 경서지방회는 2015년 1,262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37.3%p, 471명이 늘
어 1,733명이라 보고하였다.

4) 강원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강원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표 25>와 같다. 2015년 보고된 강원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13,851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1,599명이 줄어든 12,252명으로 전체 세례교인 수의 11.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동지방회의 2015년 세례교인 수는 4,478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17.4%p가 줄어든 3,701명으로 보고되었다. 강원서지방회는 2015년 9,373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025년 43.0%p가 줄어 5,345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강원지방회가 분지방된 시점에 강원서지방회는 5,757명, 강원지방회가 3,283명으로 9,043

명이던 2016년에 비해 단 3명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강원서지방회는 412명, 7.2%가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원지방회는 2017년 분할 이후 8년간 77명의 세례교인 수가 줄어, 2.3%p의 감소세를 보였다.

5) 충청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충청지역의 세례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 26>과 같다.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세례교인 수가 많은 충청지역의 2015년도 세례교인 수는 60,872명에서 2025년 현재 9.0%에 해당하는 5,484명이 줄어든 55,388명으로 2015년에 2,159명이, 2020년에 1,692명이 줄어,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24년에 비해 2025년에는 546명의 세례교인이 늘었다.

〈표 25〉 강원지역 교인수 변화표

	강 원 동	강 원 서	강 원
'15	4,478	9,373	
'16	4,433	9,043	
'17	4,402	5,757	3,283
'18	4,409	5,534	3,278
'19	4,403	5,698	3,237
'20	4,205	5,538	3,238
'21	3,991	5,493	3,229
'22	4,029	5,345	3,348
'23	3,894	5,330	3,413
'24	3,807	5,360	3,368
'25	3,701	5,345	3,206
증감	-777	-4,028 (-412)	-77
평균	-77.7	-402.8 (-52)	-7.7
증감폭	-17.4%	-43.0% (-7.2%)	-2.3%

〈표 26〉 충청지역 교인수 변화표

	충 북	청 주	충 청	충 서	충서중앙	대전동	대전서	대전중앙	충 남	세종공주
'15	3,217	6,928	4,937	10,905	5,744	7,234	4,627	6,008	7,361	3,911
'16	2,957	7,093	4,484	10,935	5,644	6,864	4,645	5,541	7,324	4,182
'17	2,942	7,281	4,482	10,721	5,280	6,586	4,554	5,655	7,221	4,175
'18	3,017	7,134	4,652	10,775	5,231	6,130	4,468	5,629	7,425	4,114
'19	2,873	7,200	4,643	10,900	5,372	5,637	4,525	5,469	7,200	4,238
'20	2,821	6,956	4,416	10,899	4,957	5,228	4,407	5,379	7,228	4,074
'21	2,822	6,843	4,402	10,804	4,838	4,996	4,402	5,343	6,961	4,014
'22	2,849	6,827	4,663	10,780	4,899	4,991	4,507	5,310	6,921	3,829
'23	2,856	6,387	4,653	10,869	4,814	4,957	4,408	5,348	6,877	3,777
'24	2,835	6,215	5,028	11,087	4,844	4,834	4,410	5,014	6,809	3,766
'25	2,835	6,419	5,081	11,273	4,820	4,793	4,416	5,265	6,731	3,755
증감	-382	-509	144	368	-924	-2,441	-211	-743	-630	-156
평균	-38.2	-50.9	14.4	36.8	-92.4	-244.1	-21.1	-74.3	-63	-15.6
증감률	-11.9%	-7.3%	2.9%	3.4%	-16.1%	-33.7%	-4.6%	-12.4%	-8.6%	-4.0%

충북지방회의 세례교인 수는 2015년 3,217명에서 2025년 2,835명으로 11.9%p가 줄었는데 이는 2024년과 같은 숫자이다., 청주지방회는 6,928명에서 6,419명으로 7.3%p가 줄었다. 청주지방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7,200명의 세례교인을 보고하였는데 이후 계속 그 숫자가 하락하는 중이다. 충청지방회는 4,937명에서 5,081명으로 2.9%p가 늘어 충서지방회 함께 충청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방회이다. 두 지방 모두 2023년에 최점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세례교인이 늘고 있다. 충서지방회는 2015년 10,905명에서 3.4% 늘어난 11,273명을 지난해 세례교인 수로 보고하였다. 충서중앙지방회는 2015년 5,744명에서 2025년 4,820명으로 16.1%p의 세례교인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전지역 3개 지방회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는데, 대전동지방회는 2015년도에 비해 세례교인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여 33.7%가 줄어든 4,793명으로, 4.6%p가 줄어든 대전서지방회는 4,416명으로, 12.4%p가 줄어든 대전중앙지방회는 5,265명을 2025년 세례교인 수로 보고하였다.

2015년 7,361명의 세례교인 수를 보고한 충남지방회는 2025년 현재 8.6%가 감소한 6,731명을 보고하였으며, 세종공주지방회는 3,911명에서 156명,

4.0%p가 줄어든 3,755명의 세례교인을 보고하였다.

6) 호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호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2015년 44,117명에서 2025년 34,260명으로 전체 세례교인수의 22.3%인 9,857명이 줄어들었다. 호남지역 각 지방회의 세례교인 변동은 <표 26>과 같다. 호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2015년에 무려 5,562명이나 줄었고, 2016년에도 2,583명이 줄어 이태에만 8,145명이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라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표 27> 호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전 북	전 주	전북중앙	군 산	전남동	전남서	광 주	전 남	전남중앙	광주동
'15	5,511	13,844	4,062	5,807	3,890	3,603	2,002	2,058	1,331	2,009
'16	4,853	13,761	3,630	5,579	3,611	3,049	2,003	1,720	1,296	2,032
'17	5,111	14,351	3,621	5,298	3,607	3,132	1,520	2,007	1,202	2,003
'18	4,938	14,084	3,606	4,910	3,603	3,196	1,502	1,767	1,202	2,144
'19	4,919	14,520	3,259	4,994	3,603	3,105	1,621	1,746	1,202	2,060
'20	4,804	13,989	3,147	4,632	3,623	3,010	1,553	1,780	1,204	2,025
'21	4,790	13,336	3,182	4,721	3,621	3,105	1,542	1,775	1,202	2,020
'22	4,438	10,828	3,147	4,763	3,296	3,151	1,517	1,755	1,203	2,117
'23	4,909	10,826	3,165	4,861	3,263	3,046	1,528	1,603	1,228	1,834
'24	4,758	9,215	3,061	4,886	3,199	3,025	1,390	1,592	1,205	1,831
'25	4,685	8,822	3,031	5,458	3,215	3,076	1,517	1,548	1,205	1,703
증감	-826	-5,022	-1,031	-349	-675	-527	-485	-510	-126	-306
평균	-82.6	-502.2	-103.1	-34.9	-67.5	-52.7	-48.5	-51	-12.6	-30.6
증감률	-15.0%	-36.3%	-25.4%	-6.0%	-17.4%	-14.6%	-24.2%	-24.8%	-9.5%	-15.2%

전북지방회의 2015년 세례교인 수는 5,511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15.0%p가 감소한 4,685명으로 보고되었고, 전주지방회는 2015년 13,844명에서 2025년 8,822명으로 전체 세례교인 수의 36.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도에는 전년도 세례교인 수의 18.8%인 2,508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전북 중앙지방회는 4,062명이던 2015년도 세례교인 수의 25.4%p가 감소하여 3,031명으로 2025년도에 보고를 하였으며, 군산지방회도 5,807명에서 6.0%p

가 감소한 5,458명을 보고하였다. 군산지방회는 지난해 572명의 세례교인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11.7%의 성장세를 보였다.

전남동지방회와 전남서지방회의 2015년도 세례교인 수는 각각 3,890명과 3,603명인데 2025년에는 3,215명과 3,76명을 보고하여 10년 전 세례교인 수의 17.4%p와 14.6%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회의 2015년도 세례교인 수는 2,002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24.2%p가 줄어든 1,517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광주동지방회도 2,009명이던 2015년의 세례교인 수가 15.2%p 줄어 1,703명이 되었다.

전남지방회는 2025년도 세례교인 수를 1,548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비해 24.8%p 줄어든 것이고, 전남중앙지방회 역시 2015년도의 1,331명에 비해 9.5%p 감소한 1,205명을 세례교인 수로 보고하였다.

7) 영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표 28〉 영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경 북	대 구	경 북 서	부 산 동	부 산 서	경 남	경 남 서	창원중앙	울 산
'15	4,484	2,697	4,348	3,149	6,434	6,433	4,444		2,860
'16	4,566	2,640	4,290	3,052	6,015	6,271	4,197		2,805
'17	4,779	2,646	4,247	2,952	5,846	6,264	4,080		2,801
'18	4,663	2,462	4,348	2,753	5,771	6,333	4,067		2,811
'19	4,431	2,505	4,269	2,679	5,769	6,039	4,084		2,394
'20	4,433	2,454	4,209	2,529	5,697	6,013	4,138		2,436
'21	4,443	2,421	4,167	2,577	5,715	6,119	4,041		2,133
'22	4,404	2,383	4,081	2,412	5,671	6,044	3,948		1,932
'23	4,432	2,374	4,030	2,331	5,462	5,778	3,802		2,090
'24	4,801	2,265	4,050	2,324	5,440	5,563	2,974	1,262	2,097
'25	4,929	2,192	4,010	2,264	5,209	5,266	3,136	1,085	2,101
증감	445	-505	-338	-885	-1,225	-1,167	-1,308 (162)	-177	-759
평균	44.5	-50.5	-33.8	-88.5	-122.5	-116.7	-130.8 (81)	-17.7	-75.9
증감률	9.9%	-18.7%	-7.8%	-28.1%	-19.0%	-18.1%	-29.4% (3.6%)	-14.0%	-26.5%

2015년도 영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총 34,849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는

30,19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례교인의 13.4%인 4,657명이 줄어든 것으로 연평균 466명씩 감소하고 있다. 영남지역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882명, 1,013명의 세례교인이 감소하여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가 가장 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북지방회는 2015년 4,484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025년 4,929명으로 늘어 영남지역 9개 지방회 중 유일하게 9.9%p 성장한 지방회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던 경북지방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세례교인 숫자가 늘고 있다. 대구지방회는 2015년 2,697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18.7%p 줄어든 2,192명으로 지난해 보고하였으며 경북서지방회 또한 2015년 4,348명의 세례교인 수가 7.8%p 감소하여 2025년 현재 4,0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부산동지방회와 부산서지방회의 세례교인 수는 각각 3,149명과 6,434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28.1%p와 19.0%p 감소한 2,264명, 5,209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경남지방회는 2015년 6,433명의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였는데 10년간 평균 116.7명씩 감소하여 2025년 현재 5,26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서지방회는 2015년 4,444명의 세례교인이 2025년 현재 3,136명으로 보고되어 29.4%p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4년 창원중앙지방회와 분지방시 2,974명으로 보고된 경남서지방회는 지난해 162명의 세례교인 수가 늘 것으로 보고하였다. 2024년 분지방 당시 세례교인 수가 1,262명이던 창원중앙지방회는 1년간 177명이 줄어 2025년 1,085명이 이 되었다. 울산지방회는 지난해 2,101명의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2015년 2,860명에 비해 26.5%p가 줄어든 것이다.

8) 제주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제주직할지방회는 2015년도 세례교인 수 1,313명에서 2025년 현재 0.7%p가 늘어난 1,304명으로 보고하였다.

세례교인의 감소세는 대부분의 지방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총회비 납부 구조 변경과 관련한 교인 명부 정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

게도 감소 추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몇몇 지방회는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새신자 수 변화

교회의 본질은 전도이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하고 새신자가 유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2000년대 이후 탈종교화 시대를 지나며 직접 전도 환경이 지극히 나빠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며 진영싸움에 앞장섬으로 교회의 대사회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정 세대의 전도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응답 결과를 보면, 만 19세 이상 7,647명의 응답자 중 60%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1983년 44%, 1989년 49%, 2004년 54%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4년 49%, 2018년 41%, 2022년 40%였으며 2024년 37%로 최저점을 기록한 것에서 반등한 수치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새신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하였다.

〈표 29〉 연도별 지역별 새신자 수 변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5	31,915	6,610	5,623	1,739	14,320	7,904	8,751	183	77,045
'16	32,386	4,002	5,313	1,636	14,738	6,837	8,586	129	73,627
'17	28,130	5,727	4,841	1,666	13,599	6,359	8,569	122	69,013
'18	23,696	4,575	4,384	1,325	12,704	6,440	8,170	178	61,472
'19	23,220	4,256	3,802	1,252	13,763	6,150	7,507	179	60,129
'20	19,155	3,214	3,967	800	8,285	4,877	6,077	87	46,462
'21	19,749	3,066	3,423	1,080	10,178	3,707	4,945	63	46,211
'22	20,594	3,120	3,201	1,021	10,324	4,491	3,544	78	46,373
'23	20,656	3,276	3,173	1,029	10,344	4,498	3,702	79	46,757
'24	21,446	3,242	3,239	1,058	9,061	3,821	3,221	143	45,23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25	25,454	3,381	3,577	755	8,900	3,880	3,309	143	49,399
증감	-6,461	-3,229	-2,046	-984	-5,420	-4,024	-5,442	-40	-27,646
평균	-646.1	-322.9	-204.6	-98.4	-542	-402.4	-544.2	-4	-2,764.6
중폭	-20.2%	-48.9%	-36.4%	-56.6%	-37.8%	-50.9%	-62.2%	-21.9%	-35.9%

2015년 한해 우리 교단이 전도한 새신자 수는 77,045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35.9%p 27,646명이 감소한 49,399명이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여파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표 30〉 연도별 지역별 새신자 수 증감표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6-'15	471	-2,608	-310	-103	418	-1,067	-165	-54	-3,418
'17-'16	-4,256	1,725	-472	30	-1,139	-478	-17	-7	-4,614
'18-'17	-4,434	-1,152	-457	-341	-895	81	-399	56	-7,541
'19-'18	-476	-319	-582	-73	1,059	-290	-663	1	-1,343
'20-'19	-4,065	-1,042	165	-452	-5,478	-1,273	-1,430	-92	-13,667
'21-'20	594	-148	-544	280	1,893	-1,170	-1,132	-24	-251
'22-'21	845	54	-222	-59	146	784	-1,401	15	162
'23-'22	62	156	-28	8	20	7	158	1	384
'24-'23	790	-34	66	29	-1,283	-677	-481	64	-1,526
'25-'24	4,008	139	338	-303	-161	59	88	0	4,168

〈그래프 4〉 광역지역별 새신자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마. 교회학교 변화

1) 교회학교 학생 수 변화

지교회가 지방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교세통계표>에서 교회학교에 관한 보고 형식이 2023년도부터 변화가 되었다. 기존의 교세통계표에 입력하는 것 외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로 세분화하고 각 부서를 남녀와 학생교사를 나누어 보고 하게 한 것이다. 이는 연령대마다 특성이 다른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구축할 기회이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교회와 지방회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입력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전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 교회학교 학생 수 통계표에도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내용을 입력한 것이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우선 연도별 교회학교 학생 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표 31> 연도별 지역별 교회학교 학생수 변화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5	27,528	9,857	9,402	3,600	19,771	12,418	10,425	531	93,532
'16	24,817	8,572	8,906	3,663	17,881	11,568	9,714	540	85,661
'17	25,204	8,317	7,833	3,520	17,745	11,075	10,199	499	84,392
'18	24,751	7,822	7,908	3,040	17,271	10,638	9,658	557	81,645
'19	22,866	7,919	7,542	3,313	16,387	9,879	9,359	579	77,844
'20	20,613	6,971	6,043	2,791	15,286	8,520	8,712	422	69,358
'21	19,127	6,750	5,355	2,422	13,640	7,102	7,746	439	62,581
'22	18,661	6,275	5,251	2,259	12,606	6,639	7,276	467	59,434
'23	19,795	5,851	5,398	2,356	12,059	6,360	6,718	386	58,923
'24	18,817	5,720	5,432	2,182	12,157	6,500	6,286	416	57,510
'25	17,842	5,675	5,098	2,243	12,104	6,460	5,919	475	55,816
증감	-9,686	-4,182	-4,304	-1,357	-7,667	-5,958	-4,506	-56	-37,716
평균	-968.6	-418.2	-430.4	-135.7	-766.7	-595.8	-450.6	-5.6	-3,771.6
증감률	-35.2%	-42.4%	-45.8%	-37.7%	-38.8%	-48.0%	-43.2%	-10.5%	-40.3%

2015년 우리 교단 교회학교 숫자는 총 93,532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40.3%가 감소한 55,816명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772명씩, 총 37,716명이 줄어든 것이다. 아래 <그래프 5>에서 보듯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있어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 그러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할 듯 하다.

<그래프 5> 광역지역별 교회학교 학생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표 32> 연도별 광역지역별 교회학교 학생 수 증감표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6-'15	-2,711	-1,285	-496	63	-1,890	-850	-711	9	-7,871
'17-'16	387	-255	-1,073	-143	-136	-493	485	-41	-1,269
'18-'17	-453	-495	75	-480	-474	-437	-541	58	-2,747
'19-'18	-1,885	97	-366	273	-884	-759	-299	22	-3,801
'20-'19	-2,253	-948	-1,499	-522	-1,101	-1,359	-647	-157	-8,486
'21-'20	-1,486	-221	-688	-369	-1,646	-1,418	-966	17	-6,777
'22-'21	-466	-475	-104	-163	-1,034	-463	-470	28	-3,147
'23-'22	1,134	-424	147	97	-547	-279	-558	-81	-511
'24-'23	-978	-131	34	-174	98	140	-432	30	-1,413
'25-'24	-975	-45	-334	61	-53	-40	-367	59	-1,694

교회학교 학생 수는 코로나19 대유행기간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8,410명, 전체 학생 수의 23.6%가 이 시기에 줄어들었다.

8개 광역지역 중 가장 많은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지역은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서울지역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969명씩, 9,686명이 줄었으며, 충청지역이 8,667명, 호남지역이 5,958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유초등부 학생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조사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과 2021년의 0세부터 14세까지 인구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2025년에 시행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표 33〉 2010년~2024년 0~14세 인구 증감 국가통계포털

	2010	2021	2024년	2024-2010	증감율
0~4세	2,219,084명	1,570,409명	1,292,676명	-926,408	-41.7%
5~9세	2,394,663명	2,212,372명	1,857,428명	-537,235	-22.4%
10~14세	3,173,226명	2,304,690명	2,270,694명	-902,532	-28.4%
합계	7,786,973명	6,087,471명	5,420,798명	-2,366,175	-30.4%

위 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15년간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는 7,786,973명에서 5,420,798명으로 30.4%인 2,366,17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114,407명이었다. 2021년에는 62,581명으로 보고하였고, 2024년에는 57,510명이었다. 15년 전에 비해 56,897명이 줄어든 것으로 교회학교 학생의 49.7%가 감소한 것이다. 인구감소율보다 약 1.5배나 더 감소하고 있다. 다만 그 추세가 줄어드는 것은 위안삼을 만하다.

2023년도부터 새롭게 작성된 교회학교 통계는 학교를 기준으로 남녀와 학생, 교사를 구분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다. 아래와 같다. 우선 2025년도 우리 교단의 지방회별 학생 현황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2025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학생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야외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서울중앙	488	498	516	1,502	457	435	892	3,545	549
서울동	133	141	198	472	159	130	289	575	127
서울서	689	821	1,054	2,564	1,137	860	1,997	3,559	274
서울남	753	705	705	2,163	689	405	1,094	3,823	260
서울북	75	130	132	337	213	176	389	421	91
서울강서	372	461	407	1,240	501	238	739	1,139	246
서울강남	280	224	308	812	248	266	514	975	222
서울강동	164	100	155	419	155	114	269	485	116
서울제일	250	262	361	873	350	273	623	882	129
서울	163	178	247	588	323	155	478	546	94
인천동	320	292	402	1,014	350	380	730	1,196	250
인천서	248	290	337	875	335	296	631	847	205
인천남	203	249	276	728	292	256	548	657	178
인천중앙	93	101	125	319	123	119	242	344	204
부천	128	100	93	321	102	109	211	393	97
경인	54	44	54	152	47	35	82	164	88
부흥	69	78	117	264	182	42	224	527	81
경기동	189	178	210	577	211	179	390	366	163
경기중앙	112	91	147	350	110	128	238	308	96
경기남	251	225	288	764	276	290	566	641	208
경기	131	174	237	542	209	176	385	829	166
경기서	220	228	300	748	279	253	532	697	147
경서	38	38	54	130	61	42	103	155	80
강원동	122	168	186	476	137	139	276	349	156
강원서	210	198	212	620	199	182	381	544	128
강원	110	110	154	374	122	140	262	416	57
충북	105	184	207	496	132	90	222	456	104
청주	222	267	330	819	300	268	568	749	183
충청	312	224	252	788	266	175	441	890	155
충서	618	554	790	1,962	654	417	1,071	1,208	264
충서중앙	165	214	224	603	238	215	453	346	95
대전동	137	186	233	556	187	160	347	707	178
대전서	153	161	224	538	197	211	408	698	129
대전중앙	189	149	364	702	262	195	457	810	157
충남	155	193	280	628	234	195	429	502	174
세종공주	132	164	186	482	160	160	320	462	103
전북	127	178	158	463	171	130	301	441	157
전주	233	137	420	790	273	269	542	936	177
전북중앙	101	94	120	315	108	93	201	140	35
군산	264	322	363	949	355	329	684	773	152
전남동	104	135	84	323	95	65	160	20	107

지방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전남서	122	141	156	419	120	104	224	308	128
광주	80	113	148	341	83	130	213	184	98
전남	42	52	84	178	78	46	124	190	78
전남중앙	22	62	56	140	61	79	140	96	32
광주동	39	64	111	214	60	71	131	175	88
경북	219	213	241	673	237	266	503	948	150
대구	82	80	87	249	83	89	172	345	137
경북서	107	127	160	394	153	101	254	468	174
부산동	60	64	58	182	75	71	146	223	73
부산서	175	222	267	664	235	197	432	968	166
경남	246	263	297	806	315	242	557	572	175
경남서	103	129	144	376	182	135	317	240	128
창원중앙	35	59	71	165	89	55	144	55	53
울산	78	84	94	256	58	52	110	267	92
제주직할	49	72	116	237	84	67	151	161	72
합계	10,341	10,991	13,600	34,932	12,812	10,495	23,307	38,721	8,226

우선 전국 56개 지방회 중 유치부 학생이 가장 많은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로 753명의 유치부 학생을 보고하였다. 그 뒤를 689명의 서울서지방회와 618명의 충서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가 488명으로 뒤따르고 있다. 2024년도에는 서울서지방회가 947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보고했고, 서울남지방회 749명, 서울중앙지방회 496명, 충서지방회 320명 순이었다. 유치부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22명의 전남중앙지방회였고, 창원중앙지방회와 경서지방회가 각각 35명, 38명으로 보고하였다.

유년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와 서울남지방회 그리고 충서지방회가 각각 821명, 705명, 498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경서지방회와 경인지방회, 전남지방회가 각각 38명, 44명, 58명으로 하위권을 이루고 있다.

초등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054명의 서울서지방회이고, 790명의 충서지방회와 705명의 서울남지방회가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경서지방회와 경인지방회, 전남중앙지방회가 54명, 54명, 56명으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어린이교회 전체 학생 수를 보면 서울서지방회가 2,564명으로 가장 많은 어린이교회 학생 수를 기록하였으며, 서울남지방회가 2,163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 두 지방회만 어린이교회 학생 수가 2,000명을 넘는 지방회였다.

2024년에는 어린이교회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지방회가 6개 지방회였는데, 2025년에는 4개로 줄었다. 총서지방회가 1,962명, 서울중앙지방회가 1,502명, 서울강서지방회와 인천동지방회가 각각 1,240명과 1,014명으로 보고하였다.

〈표 35〉 2024~2025년도 지방회별 어린이교회학교 학생 증감 현황

부 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학교		
	'24	'25	증감	'24	'25	증감	'24	'25	증감	'24	'25	증감
서울중앙	536	488	-48	546	498	-48	520	516	-4	1,602	1,502	-100
서울동	159	133	-26	153	141	-12	172	198	26	484	472	-12
서울서	922	689	-233	934	821	-113	1,170	1,054	-116	3,026	2,564	-462
서울남	864	753	-111	789	705	-84	794	705	-89	2,447	2,163	-284
서울북	146	75	-71	147	130	-17	177	132	-45	470	337	-133
서울강서	384	372	-12	400	461	61	498	407	-91	1,282	1,240	-42
서울강남	314	280	-34	223	224	1	256	308	52	793	812	19
서울강동	154	164	10	137	100	-37	209	155	-54	500	419	-81
서울제일	242	250	8	305	262	-43	471	361	-110	1,018	873	-145
서울	166	163	-3	177	178	1	321	247	-74	664	588	-76
인천동	292	320	28	283	292	9	430	402	-28	1,005	1,014	9
인천서	228	248	20	297	290	-7	302	337	35	827	875	48
인천남	225	203	-22	258	249	-9	268	276	8	751	728	-23
인천중앙	80	93	13	96	101	5	120	125	5	296	319	23
부천	103	128	25	76	100	24	104	93	-11	283	321	38
경인	48	54	6	60	44	-16	75	54	-21	183	152	-31
부흥	68	69	1	85	78	-7	133	117	-16	286	264	-22
경기동	197	189	-8	186	178	-8	214	210	-4	597	577	-20
경기중앙	120	112	-8	118	91	-27	109	147	38	347	350	3
경기남	246	251	5	258	225	-33	289	288	-1	793	764	-29
경기	131	131	0	174	174	0	237	237	0	542	542	0
경기서	235	220	-15	263	228	-35	302	300	-2	800	748	-52
경서	54	38	-16	48	38	-10	82	54	-28	184	130	-54
강원동	113	122	9	145	168	23	169	186	17	427	476	49
강원서	216	210	-6	194	198	4	221	212	-9	631	620	-11
강원	111	110	-1	138	110	-28	162	154	-8	411	374	-37
충북	113	105	-8	179	184	5	217	207	-10	509	496	-13
청주	277	222	-55	293	267	-26	424	330	-94	994	819	-175

부 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학교		
	'24	'25	증감	'24	'25	증감	'24	'25	증감	'24	'25	증 감
총 청	266	312	46	205	224	19	254	252	-2	725	788	63
총 서	320	618	298	373	554	181	416	790	374	1,109	1,962	853
총서중앙	165	165	0	197	214	17	272	224	-48	634	603	-31
대전동	154	137	-17	226	186	-40	234	233	-1	614	556	-58
대전서	162	153	-9	167	161	-6	242	224	-18	571	538	-33
대전중앙	173	189	16	262	149	-113	345	364	19	780	702	-78
총 남	147	155	8	224	193	-31	281	280	-1	652	628	-24
세종공주	132	132	0	170	164	-6	176	186	10	478	482	4
전 북	156	127	-29	144	178	34	231	158	-73	531	463	-68
전 주	202	233	31	335	137	-198	465	420	-45	1,002	790	-212
전북중앙	100	101	1	95	94	-1	138	120	-18	333	315	-18
군 산	299	264	-35	275	322	47	325	363	38	899	949	50
전남동	104	104	0	135	135	0	84	84	0	323	323	0
전남서	106	122	16	139	141	2	145	156	11	390	419	29
광 주	85	80	-5	114	113	-1	147	148	1	346	341	-5
전 남	39	42	3	55	52	-3	82	84	2	176	178	2
전남중앙	36	22	-14	68	62	-6	58	56	-2	162	140	-22
광주동	59	39	-20	73	64	-9	106	111	5	238	214	-24
경 북	187	219	32	198	213	15	271	241	-30	656	673	17
대 구	85	82	-3	89	80	-9	90	87	-3	264	249	-15
경북서	121	107	-14	174	127	-47	175	160	-15	470	394	-76
부산동	51	60	9	73	64	-9	62	58	-4	186	182	-4
부산서	214	175	-39	215	222	7	278	267	-11	707	664	-43
경 남	251	246	-5	295	263	-32	329	297	-32	875	806	-69
경남서	90	103	13	118	129	11	126	144	18	334	376	42
창원중앙	24	35	11	30	59	29	51	71	20	105	165	60
울 산	89	78	-11	75	84	9	110	94	-16	274	256	-18
제주직할	47	49	2	71	72	1	132	116	-16	250	237	-13
합 계	10,608	10,341	-267	11,557	10,991	-566	14,071	13,600	-471	36,236	34,932	-1,304

중등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137명의 서울서지방회인데 유일한 1,000명대 지방회였으며, 689명의 서울남지방회와 654명의 총서지방회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등부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47명의 경인지

방회와 58명의 울산지방회로 보고되었다.

고등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 또한 860명의 서울서지방회였다. 서울중앙지방회가 435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충서지방회가 4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등부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경인지방회와 경서지방회, 부흥지방회로 각각 35명과 42명, 42명을 보고하였다.

청소년교회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로 2024년에는 유일하게 2,000명을 넘긴 지방회였으나 이제는 1,997명을 보고하여 2,000명대 청소년교회는 단 한 지방회도 없게 되었다. 1,000명이 넘는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와 충서지방회가 각각 1,094명과 1,071명으로 상위권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청소년교회 학생 수가 적은 지방회는 82명의 경인지방회와 103명의 경서지방회였다.

〈표 36〉 2024~2025년도 지방회별 청소년교회학교 학생 증감 현황

부 서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24	'25	증감	'24	'25	증감	'24	'25	증감
서울중앙	546	457	-89	436	435	-1	982	892	-90
서울동	142	159	17	149	130	-19	291	289	-2
서울서	1,188	1,137	-51	845	860	15	2,033	1,997	-36
서울남	783	689	-94	398	405	7	1,181	1,094	-87
서울북	154	213	59	93	176	83	247	389	142
서울강서	445	501	56	365	238	-127	810	739	-71
서울강남	265	248	-17	735	266	-469	1,000	514	-486
서울강동	164	155	-9	146	114	-32	310	269	-41
서울제일	382	350	-32	276	273	-3	658	623	-35
서울	212	323	111	352	155	-197	564	478	-86
인천동	371	350	-21	323	380	57	694	730	36
인천서	335	335	0	258	296	38	593	631	38
인천남	317	292	-25	249	256	7	566	548	-18
인천중앙	121	123	2	95	119	24	216	242	26
부천	80	102	22	83	109	26	163	211	48
경인	49	47	-2	40	35	-5	89	82	-7
부흥	170	182	12	157	42	-115	327	224	-103
경기동	200	211	11	154	179	25	354	390	36
경기중앙	141	110	-31	92	128	36	233	238	5
경기남	256	276	20	300	290	-10	556	566	10
경기	209	209	0	175	176	1	384	385	1
경기서	305	279	-26	240	253	13	545	532	-13
경서	59	61	2	52	42	-10	111	103	-8
강원동	154	137	-17	129	139	10	283	276	-7

부 서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24	'25	증감	'24	'25	증감	'24	'25	증감
강원서	193	199	6	216	182	-34	409	381	-28
강원	123	122	-1	115	140	25	238	262	24
충북	134	132	-2	74	90	16	208	222	14
청주	370	300	-70	234	268	34	604	568	-36
충청	234	266	32	167	175	8	401	441	40
충서	465	654	189	283	417	134	748	1,071	323
충서중앙	190	238	48	207	215	8	397	453	56
대전동	201	187	-14	184	160	-24	385	347	-38
대전서	220	197	-23	195	211	16	415	408	-7
대전중앙	268	262	-6	206	195	-11	474	457	-17
충남	295	234	-61	233	195	-38	528	429	-99
세종공주	151	160	9	216	160	-56	367	320	-47
전북	169	171	2	140	130	-10	309	301	-8
전주	318	273	-45	293	269	-24	611	542	-69
전북중앙	111	108	-3	99	93	-6	210	201	-9
군산	150	355	205	223	329	106	373	684	311
전남동	95	95	0	65	65	0	160	160	0
전남서	123	120	-3	148	104	-44	271	224	-47
광주	78	83	5	80	130	50	158	213	55
전남	62	78	16	54	46	-8	116	124	8
전남중앙	59	61	2	80	79	-1	139	140	1
광주동	60	60	0	57	71	14	117	131	14
경북	215	237	22	214	266	52	429	503	74
대구	99	83	-16	91	89	-2	190	172	-18
경북서	163	153	-10	118	101	-17	281	254	-27
부산동	101	75	-26	33	71	38	134	146	12
부산서	232	235	3	225	197	-28	457	432	-25
경남	276	315	39	230	242	12	506	557	51
경남서	144	182	38	144	135	-9	288	317	29
창원중앙	49	89	40	0	55	55	49	144	95
울산	73	58	-15	69	52	-17	142	110	-32
제주직할	86	84	-2	66	67	1	152	151	-1
합계	12,555	12,812	257	10,901	10,495	-406	23,456	23,307	-149

청년 숫자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로 3,823명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들이 주로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 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도 각각 3,559명과 3,545명으로 보고되었는데, 대학가가 주로 위치한다는 점과 세 지방회 모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특성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00명이 넘는

청년 숫자를 보고한 지방회로는 1,208명의 충서지방회와 1,196명의 인천동지방회와 1,139명의 서울강서지방회가 있다. 반면 청년 숫자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전남동지방회로 20명이 보고되었으며, 창원중앙지방회와 전남중앙지방회가 각각 55명과 96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37〉 2024~2025년도 지방회별 청년 및 교회학교 부서 증감 현황

부 서	청년			교회학교부서		
	'24	'25	증감	'24	'25	증감
서울중앙	3,445	3,545	100	254	549	295
서울동	634	575	-59	131	127	-4
서울서	3,716	3,559	-157	328	274	-54
서울남	4,577	3,823	-754	257	260	3
서울북	316	421	105	91	91	0
서울강서	1,332	1,139	-193	280	246	-34
서울강남	735	975	240	229	222	-7
서울강동	505	485	-20	122	116	-6
서울제일	802	882	80	129	129	0
서울	548	546	-2	94	94	0
인천동	1,239	1,196	-43	204	250	46
인천서	842	847	5	206	205	-1
인천남	665	657	-8	173	178	5
인천중앙	340	344	4	182	204	22
부천	353	393	40	96	97	1
경인	177	164	-13	100	88	-12
부흥	494	527	33	71	81	10
경기동	423	366	-57	162	163	1
경기중앙	389	308	-81	103	96	-7
경기남	619	641	22	201	208	7
경기	825	829	4	167	166	-1
경기서	606	697	91	138	147	9
경서	149	155	6	75	80	5
강원동	347	349	2	134	156	22
강원서	484	544	60	167	128	-39
강원	400	416	16	122	57	-65
충북	366	456	90	105	104	-1
청주	854	749	-105	162	183	21
충청	889	890	1	147	155	8
충서	812	1,208	396	312	264	-48
충서중앙	371	346	-25	89	95	6
대전동	702	707	5	178	178	0
대전서	731	698	-33	106	129	23

부 서	청년			교회학교부서		
	'24	'25	증감	'24	'25	증감
대전중앙	533	810	277	156	157	1
충 남	585	502	-83	188	174	-14
세종공주	462	462	0	154	103	-51
전 북	455	441	-14	157	157	0
전 주	1,003	936	-67	188	177	-11
전북중앙	395	140	-255	72	35	-37
군 산	643	773	130	142	152	10
전 남 동	20	20	0	106	107	1
전 남 서	247	308	61	128	128	0
광 주	129	184	55	95	98	3
전 남	206	190	-16	81	78	-3
전남중앙	85	96	11	81	32	-49
광 주 동	217	175	-42	101	88	-13
경 북	933	948	15	151	150	-1
대 구	329	345	16	147	137	-10
경 북 서	496	468	-28	195	174	-21
부 산 동	208	223	15	85	73	-12
부 산 서	986	968	-18	170	166	-4
경 남	611	572	-39	153	175	22
경 남 서	229	240	11	102	128	26
창원중앙	0	55	55	50	53	3
울 산	299	267	-32	96	92	-4
제주직할	172	161	-11	69	72	3
합 계	38,930	38,721	-209	8,182	8,226	44

교회학교 부서 숫자는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이다. 즉 A라는 교회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운영하고 있다면, 6개 부서가 보고되는 것이고, B라는 교회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만 운영한다면 3개 부서를 보고하게 된다. 교회학교 부서를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전담 교역자의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

전국 56개 지방회 중 가장 많은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지방회는 서울중앙지방회로 549개 부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4년에 서울중앙지방회는 교회학교 부서 254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1년 새 295개가 늘어난 것은 특기할 만하다. 2025년 현재 서울중앙지방회에는 71개의 교회가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회는 교회당 7.7개의 교회학교 부서를 운영하는 상황인데, 교세통계 보고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은 교회학교 부서를 운영 중인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로 274개를 보고하였다. 이는 2024년에 비해 54개가 줄어든 것이다. 2024년 서울서지방회의 교회는 총 107개로 교회당 평균 3개의 부서가 운영되었으나, 2025년에는 104개 교회가 평균 2.6개로 줄었다. 그 뒤를 264개의 충서지방회와 260개의 서울남지방회가 따르고 있다.

가장 적은 수의 교회학교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 지방회는 32개의 전남중앙지방회이고, 전북중앙지방회가 35개를 보고하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광역지역의 어린이교회의 변화는 <표 38>과 같다. 2024년도 대비 유치부 학생 수는 267명이 줄었는데, 서울지역에서 520명이 줄었고, 충청지역에서 279명이 늘었다. 충청지역은 2024년도에는 2023년에 비해 344명이 줄었다고 보고하였는데, 2025년에는 279명이 늘어 교세통계 보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또한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듯싶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23년부터 2년간 유치부 학생 수는 총 741명이 줄었고, 이중 서울지역이 전체 감소 인원의 59.8%를 차지하였다.

2024년도 대비 2025년 유년부 학생수는 566명이 줄었는데 1명이 늘었다고 보고한 제주지역과 변동 없음을 보고한 충청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줄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유년부 학생 수가 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291명이 줄었고, 호남지역과 경기지역도 각각 135명과 113명이 줄었다. 지난 2년간 유년부 학생은 1,037명이 감소하였는데, 서울지역이 523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이 각각 261명과 100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초등부 학생수의 감소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14,775명으로 보고된 전국 어린이교회학교 초등부 학생수는 2024년에 704명이 준 14,071명으로 보고되었고, 지난해는 471명이 줄어 2025년 현재 2023년 대비 1,175명이 준 13,600명이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포함하는 어린이교회학교 학생 수는 2023년 37,885명이었는데 2025년 현재 2,953명이 줄어 34,932명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2년 가장 많은 감소를 보고한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1,323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 특히 1,316명이나 준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8〉 2023년~2025년도 광역지역별 어린이교회 학생 수 변화표

유치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3,810	3,887	77	3,367	-520	-443
인천 지역	1,120	1,044	-76	1,115	71	-5
경기 지역	1,030	983	-47	941	-42	-89
강원 지역	442	440	-2	442	2	0
충청 지역	2,253	1,909	-344	2,188	279	-65
호남 지역	1,197	1,186	-11	1,134	-52	-63
영남 지역	1,177	1,112	-65	1,105	-7	-72
계	53	47	-6	49	2	-4
합계	11,082	10,608	-474	10,341	-267	-741

유년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4,043	3,811	-232	3,520	-291	-523
인천 지역	1,168	1,155	-13	1,154	-1	-14
경기 지역	985	1,047	62	934	-113	-51
강원 지역	490	477	-13	476	-1	-14
충청 지역	2,375	2,296	-79	2,296	0	-79
호남 지역	1,559	1,433	-126	1,298	-135	-261
영남 지역	1,341	1,267	-74	1,241	-26	-100
계	67	71	4	72	1	5
합계	12,028	11,557	-471	10,991	-566	-1,037

초등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4,440	4,588	148	4,083	-505	-357
인천 지역	1,605	1,432	-173	1,404	-28	-201
경기 지역	1,244	1,233	-11	1,236	3	-8
강원 지역	617	552	-65	552	0	-65
충청 지역	3,163	2,861	-302	3,090	229	-73
호남 지역	1,854	1,781	-73	1,700	-81	-154
영남 지역	1,732	1,492	-240	1,419	-73	-313
계	120	132	12	116	-16	-4
합계	14,775	14,071	-704	13,600	-471	-1,175

어린이교회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12,293	12,286	-7	10,970	-1,316	-1,323
인천 지역	3,893	3,631	-262	3,673	42	-220
경기 지역	3,259	3,263	4	3,111	-152	-148
강원 지역	1,549	1,469	-80	1,470	1	-79
충청 지역	7,791	7,066	-725	7,574	508	-217
호남 지역	4,610	4,400	-210	4,132	-268	-478
영남 지역	4,250	3,871	-379	3,765	-106	-485
계	240	250	10	237	-13	-3
합계	37,885	36,236	-1,649	34,932	-1,304	-2,953

2025년 청소년교회는 전년에 비해 149명의 학생이 감소하였다. 중등부에서는 지난 한 해 257명의 학생이 늘었는데, 서울지역과 인천, 경기, 강원 및 제주지역은 하락한 반면, 충청지역과 호남지역 그리고 영남지역에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충청지역의 2024년도 보고는 전년에 비해 7,841명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誤記)가 아닐지 생각한다. 충청지역을 제외한 2023년 대비 2024년도 중학생 감소 숫자는 462명이기 때문이다.

〈표 39〉 2023년~2025년도 광역지역별 청소년교회 학생 수 변화표

중등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4,425	4,281	-144	4,232	-49	-193
인천 지역	1,435	1,443	8	1,431	-12	-4
경기 지역	1,192	1,170	-22	1,146	-24	-46
강원 지역	493	470	-23	458	-12	-35
충청 지역	10,369	2,528	-7,841	2,630	102	-7,739
호남 지역	1,502	1,225	-277	1,404	179	-98
영남 지역	1,363	1,352	-11	1,427	75	64
제주	79	86	7	84	-2	5
합계	20,858	12,555	-8,303	12,812	257	-8,046
고등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3,351	3,795	444	3,052	-743	-299
인천 지역	1,280	1,205	-75	1,237	32	-43
경기 지역	1,029	1,013	-16	1,068	55	39
강원 지역	479	460	-19	461	1	-18
충청 지역	2,064	1,999	-65	2,086	87	22
호남 지역	1,194	1,239	45	1,316	77	122
영남 지역	1,236	1,124	-112	1,208	84	-28
제주	60	66	6	67	1	7
합계	10,693	10,901	208	10,495	-406	-198
청소년교회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7,776	8,076	300	7,284	-792	-492
인천 지역	2,715	2,648	-67	2,668	20	-47
경기 지역	2,221	2,183	-38	2,214	31	-7
강원 지역	972	930	-42	919	-11	-53
충청 지역	12,433	4,527	-7,906	4,716	189	-7,717
호남 지역	2,696	2,464	-232	2,720	256	24
영남 지역	2,599	2,476	-123	2,635	159	36
제주	139	152	13	151	-1	12
합계	31,551	23,456	-8,095	23,307	-149	-8,244

고등부의 경우 전년 대비 406명의 학생이 줄었는데 서울지역에서만 743명

이 줄었고 제주에서 2명이 감소하였다. 나머지 지역은 증가하였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충청지역으로 87명이 늘었고,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이 각각 84명과 87명이 늘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교회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지난 한 해에만 792명이 줄어든 서울지역으로 전년에 300명이 늘었다고 보고한 것을 고려한다면 2년 만에 1,092명의 인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변동 폭이 과도하게 큰 서울지역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감소 숫자는 35명이다.

지난해 대비 우리 교단 청년 숫자는 209명이 감소하였는데, 서울지역과 호남지역이 각각 660명과 137명이 줄었고, 경기지역과 제주지역, 영남지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지난 2년 새 우리 교단에서 청년 숫자가 1,002명이나 사라졌는데, 지역마다 변동 폭이 너무 커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는 2024년에 전년 대비 578명이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다시 660명이 줄어 최종 82명만이 감소하였다. 충청지역은 반대로 2024년에 633명이 줄었지만, 지난해는 다시 523명이 늘어 110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자료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못한 입력자의 실수가 누적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치이다.

〈표 40〉 2023년~2025년도 광역지역별 청년 수 변화표

청년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16,032	16,610	578	15,950	-660	-82
인천 지역	4,418	4,110	-308	4,128	18	-290
경기 지역	3,196	3,011	-185	2,996	-15	-200
강원 지역	1,253	1,231	-22	1,309	78	56
충청 지역	6,938	6,305	-633	6,828	523	-110
호남 지역	3,448	3,400	-48	3,263	-137	-185
영남 지역	4,332	4,091	-241	4,086	-5	-246
제주	106	172	66	161	-11	55
합 계	39,723	38,930	-793	38,721	-209	-1,002

이제 지방회별 교회학교 학생 수를 조금 더 분석해 보자. 2024년 지방회별 교회당 학생 수는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2025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회당 평균 학생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서울중앙	6.9	7.0	7.3	21.2	6.4	6.1	12.6	49.9
서울동	1.9	2.0	2.8	6.6	2.2	1.8	4.1	8.1
서울서	9.7	11.6	14.8	36.1	16.0	12.1	28.1	50.1
서울남	10.6	9.9	9.9	30.5	9.7	5.7	15.4	53.8
서울북	1.1	1.8	1.9	4.7	3.0	2.5	5.5	5.9
서울강서	5.2	6.5	5.7	17.5	7.1	3.4	10.4	16.0
서울강남	3.9	3.2	4.3	11.4	3.5	3.7	7.2	13.7
서울강동	2.3	1.4	2.2	5.9	2.2	1.6	3.8	6.8
서울제일	3.5	3.7	5.1	12.3	4.9	3.8	8.8	12.4
서울	2.3	2.5	3.5	8.3	4.5	2.2	6.7	7.7
인천동	4.5	4.1	5.7	14.3	4.9	5.4	10.3	16.8
인천서	3.5	4.1	4.7	12.3	4.7	4.2	8.9	11.9
인천남	2.9	3.5	3.9	10.3	4.1	3.6	7.7	9.3
인천중앙	1.3	1.4	1.8	4.5	1.7	1.7	3.4	4.8
부천	1.8	1.4	1.3	4.5	1.4	1.5	3.0	5.5
경기인	0.8	0.6	0.8	2.1	0.7	0.5	1.2	2.3
부흥	1.0	1.1	1.6	3.7	2.6	0.6	3.2	7.4
경기동	2.7	2.5	3.0	8.1	3.0	2.5	5.5	5.2
경기중앙	1.6	1.3	2.1	4.9	1.5	1.8	3.4	4.3
경기남	3.5	3.2	4.1	10.8	3.9	4.1	8.0	9.0
경기	1.8	2.5	3.3	7.6	2.9	2.5	5.4	11.7
경기서	3.1	3.2	4.2	10.5	3.9	3.6	7.5	9.8
경서	0.5	0.5	0.8	1.8	0.9	0.6	1.5	2.2
강원동	1.7	2.4	2.6	6.7	1.9	2.0	3.9	4.9
강원서	3.0	2.8	3.0	8.7	2.8	2.6	5.4	7.7
강원	1.5	1.5	2.2	5.3	1.7	2.0	3.7	5.9
충북	1.5	2.6	2.9	7.0	1.9	1.3	3.1	6.4
청주	3.1	3.8	4.6	11.5	4.2	3.8	8.0	10.5
충청	4.4	3.2	3.5	11.1	3.7	2.5	6.2	12.5
충서	8.7	7.8	11.1	27.6	9.2	5.9	15.1	17.0
충서중앙	2.3	3.0	3.2	8.5	3.4	3.0	6.4	4.9
대전동	1.9	2.6	3.3	7.8	2.6	2.3	4.9	10.0
대전서	2.2	2.3	3.2	7.6	2.8	3.0	5.7	9.8
대전중앙	2.7	2.1	5.1	9.9	3.7	2.7	6.4	11.4
충남	2.2	2.7	3.9	8.8	3.3	2.7	6.0	7.1
세종공주	1.9	2.3	2.6	6.8	2.3	2.3	4.5	6.5
전북	1.8	2.5	2.2	6.5	2.4	1.8	4.2	6.2
전주	3.3	1.9	5.9	11.1	3.8	3.8	7.6	13.2
전북중앙	1.4	1.3	1.7	4.4	1.5	1.3	2.8	2.0
군산	3.7	4.5	5.1	13.4	5.0	4.6	9.6	10.9
전남동	1.5	1.9	1.2	4.5	1.3	0.9	2.3	0.3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전 남 서	1.7	2.0	2.2	5.9	1.7	1.5	3.2	4.3
광 주	1.1	1.6	2.1	4.8	1.2	1.8	3.0	2.6
전 남	0.6	0.7	1.2	2.5	1.1	0.6	1.7	2.7
전남중앙	0.3	0.9	0.8	2.0	0.9	1.1	2.0	1.4
광 주 동	0.5	0.9	1.6	3.0	0.8	1.0	1.8	2.5
경 북	3.1	3.0	3.4	9.5	3.3	3.7	7.1	13.4
대 구	1.2	1.1	1.2	3.5	1.2	1.3	2.4	4.9
경 북 서	1.5	1.8	2.3	5.5	2.2	1.4	3.6	6.6
부 산 동	0.8	0.9	0.8	2.6	1.1	1.0	2.1	3.1
부 산 서	2.5	3.1	3.8	9.4	3.3	2.8	6.1	13.6
경 남	3.5	3.7	4.2	11.4	4.4	3.4	7.8	8.1
경 남 서	1.5	1.8	2.0	5.3	2.6	1.9	4.5	3.4
창원제일	0.5	0.8	1.0	2.3	1.3	0.8	2.0	0.8
울 산	1.1	1.2	1.3	3.6	0.8	0.7	1.5	3.8
제주직할	0.7	1.0	1.6	3.3	1.2	0.9	2.1	2.3
합 계	3.6	3.8	4.7	12.1	4.4	3.6	8.1	13.4

2025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교회 학생 수는 34,932명으로 교회당 평균 어린이교회학교 학생 수는 12.1명이다. 2023년은 13.0명이었고, 지난해는 12.4명이었다. 청소년교회 학생 수는 23,307명으로 교회당 8.1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지만 정상적인 교회학교를 꾸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교회당 청년 숫자의 평균은 13.4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가장 교회학교가 활성화된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로 어린이교회 학생 수를 2,564명, 청소년교회 학생 수는 1,997명, 청년은 3,559명으로 보고하였다. 서울남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 충서지방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교회당 평균 어린이교회 학생 수를 보면, 유치부는 3.6명, 유년부는 3.8명, 초등부는 4.7명으로 교회당 어린이교회 학생 수가 평균 12.1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회당 평균 학생수는 유치부 3.6명, 유년부, 4.0명, 초등부 4.8명으로 어린이교회 평균은 12.4명이었다.

교회당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지방회, 즉 교회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로 유치부는 9.7명, 유년부는 11.6명, 초등부는 14.8명으로 교회당 36.1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지방회가 30.5명, 충서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가 27.6명과 21.2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가장 학생 수가 적은 지방회는 1.8명의 경서지방회로 어린이교회 학생 수 평균이 유치부 0.5명, 유년부 0.5명, 초등부 0.8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중앙지방회가 2.0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교회의 교회당 평균 학생 수는 8.1명으로 지난해와 같은데 중등부는 4.34명, 고등부는 3.6명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교회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28.1명의 서울서지방회로 중등부는 16.0명, 고등부는 12.1명으로 보고되었다. 서울남지방회와 충서지방회가 15.6명과 15.1명으로 선두권을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교회 평균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경인지방회로 교회당 평균 1.2명의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경서지방회와 울산지방회가 1.5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교회당 평균 청년 숫자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53.8명의 서울남지방회와 50.1명의 서울서지방회 그리고 49.9명의 서울중앙지방회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0.3명의 전남동지방회와 0.8명의 창원중앙지방회 그리고 1.4명의 전남중앙지방회가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교회학교 교사 수 변화

2024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사 수는 아래 <표 42>와 같다. 우선 전국 56개 지방회 중 유치부의 교사 숫자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294명의 서울남지방회이고, 290명의 서울서지방회와 184명의 서울중앙지방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유치부 교사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8명의 전남중앙지방회와 13명의 경인지방회 그리고 15명의 광주동지방회 순이다.

<표 42> 2025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사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야간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서울중앙	194	140	139	473	103	94	197	124	549
서울동	86	53	55	194	40	41	81	16	127
서울서	290	223	266	779	199	164	363	53	274
서울남	294	198	199	691	172	106	278	43	260
서울북	34	29	42	105	30	23	53	20	91
서울강서	151	136	125	412	130	77	207	40	246
서울강남	95	72	89	256	68	63	131	50	222
서울강동	71	42	51	164	44	38	82	21	116
서울제일	73	36	35	144	31	24	55	23	129
서울	77	55	68	200	61	50	111	10	94
인천동	95	95	119	309	88	90	178	62	250

은총 속에 결어은 120년 함께 도약하는 성결교회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야외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인천서	111	92	335	538	83	73	156	32	205
인천남	92	73	84	249	83	56	139	28	178
인천중앙	33	35	39	107	28	31	59	33	204
부 천	59	26	31	116	29	31	60	12	97
경 인	13	14	18	45	12	13	25	21	88
부 흥	57	49	19	125	19	18	37	15	81
경기동	59	60	53	172	38	45	83	19	163
경기중앙	44	37	40	121	24	34	58	25	96
경기남	109	73	81	263	65	52	117	31	208
경 기	52	55	62	169	53	50	103	23	166
경기서	69	68	93	230	62	52	114	22	147
경 서	19	15	23	57	14	9	23	17	80
강원동	36	45	55	136	30	29	59	20	156
강원서	84	52	68	204	44	43	87	15	128
강 원	38	40	42	120	26	28	54	15	57
충 북	50	41	35	126	30	24	54	19	104
청 주	105	81	101	287	75	73	148	34	183
충 청	87	81	66	234	59	46	105	20	155
충 서	158	143	140	441	95	82	177	55	264
충서중앙	54	54	51	159	30	32	62	13	95
대전동	62	49	61	172	47	49	96	25	178
대전서	65	52	66	183	44	43	87	29	129
대전중앙	81	66	83	230	49	50	99	30	157
충 남	56	51	81	188	49	51	100	22	174
세종공주	47	49	46	142	44	44	88	19	103
전 북	57	43	51	151	54	37	91	20	157
전 주	105	43	115	263	60	65	125	16	177
전북중앙	29	28	32	89	24	30	54	24	35
군 산	68	67	63	198	66	44	110	19	152
전남동	26	48	19	93	20	20	40	15	107
전남서	24	41	40	105	25	28	53	9	128
광 주	26	33	40	99	21	22	43	10	98
전 남	19	24	24	67	15	21	36	8	78
전남중앙	8	10	8	26	10	15	25	7	32
광주동	15	15	29	59	21	20	41	14	88
경 북	90	80	87	257	42	50	92	32	150
대 구	56	37	33	126	36	35	71	34	137
경북서	39	47	58	144	42	42	84	30	174
부산동	37	28	30	95	26	20	46	16	73
부산서	119	87	94	300	81	82	163	40	166
경 남	109	90	90	289	58	54	112	24	175
경남서	53	41	39	133	35	30	65	10	128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창원중앙	22	25	35	82	22	17	39	16	53
울 산	32	30	27	89	28	23	51	15	92
제주직할	16	15	18	49	13	11	24	6	72
합 계	4,050	3,312	3,893	11,255	2,797	2,494	5,291	1,421	8,226

유년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로 223명의 교사가 봉사하고 있으며, 서울남지방회 그리고 충서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가 각각 198명, 143명, 140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전남중앙지방회와 경인지방회가 각각 10명, 14명으로 하위권을 이루고 있다.

초등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335명의 인천서지방회이고, 266명의 서울서지방회와 199명의 인천남지방회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중앙지방회가 8명, 경인지방회와 제주직할지방회가 18명으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어린이교회 전체 교사 수를 보면 서울서지방회가 779명을 보고하였으며, 서울남지방회는 691명이었다. 인천서지방회가 538명으로 유일한 500명 대 교사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400명을 넘는 지방회는 서울중앙지방회와 충서지방회, 서울강서지방회로 각각 473명과 441명, 412명을 보고하였다.

중등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99명의 서울서지방회인데 지난해 교사 숫자가 200명이 넘는 유일한 지방회였으나 올해는 두 명이 줄어 200명이 넘는 지방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172명의 서울남지방회와 130명의 서울강서지방회, 103명의 서울중앙지방회가 뒤를 따르고 있다. 중등부 교사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전남중앙지방회로 10명이었으며, 경인지방회와 제주직할지방회가 각각 12명, 13명으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고등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도 164명의 서울서지방회이다. 그 뒤를 서울남지방회가 106명으로 따르고 있다. 고등부 교사 숫자가 100명을 넘는 지방회는 이 두 지방회가 유이다. 고등부 교사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경서지방회의 8명이고, 제주직할지방회와 경인지방회가 11명과 13명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교회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도 363명의 서울서지방회로 유일하게 청소년교회 교사가 300명이 넘는 지방회이다. 청소년교회 교사 수가 200명이 넘는 지방회는 278명의 서울남지방회와 207명의 서울강서지방회이다.

청년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24명의 서울중앙지방회이다. 다음

은 62명의 인천동지방회이고 충서지방회와 서울서지방회, 서울강남지방회만이 청년부 교사 수가 50명을 넘었다. 제주직할지방회와 전남중앙지방회는 각각 6명과 7명을 보고하였다.

교회당 교회학교 교사의 평균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43〉 2025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회당 평균 교사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서울중앙	2.7	2.0	2.0	6.7	1.5	1.3	2.8	1.7
서울 동	1.9	1.2	1.2	4.2	0.9	0.9	1.8	0.3
서울 서	2.8	2.1	2.6	7.5	1.9	1.6	3.5	0.5
서울 남	4.1	2.8	2.8	9.7	2.4	1.5	3.9	0.6
서울 북	0.8	0.7	1.0	2.4	0.7	0.5	1.2	0.5
서울강서	2.0	1.8	1.6	5.4	1.7	1.0	2.7	0.5
서울강남	1.5	1.1	1.4	4.0	1.1	1.0	2.0	0.8
서울강동	2.2	1.3	1.5	5.0	1.3	1.2	2.5	0.6
서울제일	1.7	0.8	0.8	3.3	0.7	0.5	1.3	0.5
서울	1.5	1.1	1.3	3.8	1.2	1.0	2.1	0.2
인천 동	1.4	1.4	1.8	4.6	1.3	1.3	2.7	0.9
인천 서	1.7	1.4	5.2	8.3	1.3	1.1	2.4	0.5
인천 남	1.8	1.4	1.6	4.9	1.6	1.1	2.7	0.5
인천중앙	0.6	0.6	0.7	1.8	0.5	0.5	1.0	0.6
부 천	1.7	0.7	0.9	3.3	0.8	0.9	1.7	0.3
경 인	0.3	0.3	0.4	0.9	0.3	0.3	0.5	0.4
부 흥	1.6	1.4	0.5	3.6	0.5	0.5	1.1	0.4
경 기 동	1.2	1.2	1.0	3.4	0.7	0.9	1.6	0.4
경기중앙	1.0	0.8	0.9	2.8	0.5	0.8	1.3	0.6
경 기 남	1.7	1.1	1.2	4.0	1.0	0.8	1.8	0.5
경 기	1.0	1.1	1.2	3.3	1.0	1.0	2.0	0.4
경 기 서	1.6	1.5	2.1	5.2	1.4	1.2	2.6	0.5
경 서	0.5	0.4	0.5	1.4	0.3	0.2	0.5	0.4
강 원 동	0.7	0.9	1.1	2.8	0.6	0.6	1.2	0.4
강 원 서	1.7	1.0	1.4	4.1	0.9	0.9	1.7	0.3
강 원	0.9	0.9	1.0	2.7	0.6	0.6	1.2	0.3
충 북	1.3	1.1	0.9	3.3	0.8	0.6	1.4	0.5
청 주	1.5	1.2	1.5	4.2	1.1	1.1	2.1	0.5
충 청	1.6	1.5	1.2	4.3	1.1	0.8	1.9	0.4
충 서	1.5	1.3	1.3	4.1	0.9	0.8	1.7	0.5
충서중앙	0.9	0.9	0.9	2.7	0.5	0.5	1.0	0.2
대 전 동	0.9	0.7	0.9	2.5	0.7	0.7	1.4	0.4
대 전 서	1.4	1.2	1.5	4.1	1.0	1.0	1.9	0.6
대전중앙	1.7	1.3	1.7	4.7	1.0	1.0	2.0	0.6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총 남	0.8	0.7	1.2	2.7	0.7	0.7	1.4	0.3
세종공주	0.9	0.9	0.9	2.7	0.8	0.8	1.7	0.4
전 북	1.2	0.9	1.0	3.1	1.1	0.8	1.9	0.4
전 주	1.8	0.8	2.0	4.6	1.1	1.1	2.2	0.3
전북중앙	0.8	0.8	0.9	2.5	0.7	0.9	1.5	0.7
군 산	1.3	1.2	1.2	3.7	1.2	0.8	2.0	0.4
전 남 동	0.5	0.9	0.3	1.7	0.4	0.4	0.7	0.3
전 남 서	0.3	0.6	0.6	1.5	0.4	0.4	0.8	0.1
광 주	0.8	1.1	1.3	3.2	0.7	0.7	1.4	0.3
전 남	0.5	0.6	0.6	1.7	0.4	0.5	0.9	0.2
전남중앙	0.3	0.3	0.3	0.8	0.3	0.5	0.8	0.2
광 주 동	0.4	0.4	0.7	1.5	0.5	0.5	1.0	0.4
경 북	1.8	1.6	1.7	5.1	0.8	1.0	1.8	0.6
대 구	1.3	0.9	0.8	3.0	0.9	0.8	1.7	0.8
경 북 서	0.6	0.8	0.9	2.3	0.7	0.7	1.4	0.5
부 산 동	1.2	0.9	1.0	3.1	0.8	0.6	1.5	0.5
부 산 서	2.6	1.9	2.0	6.5	1.8	1.8	3.5	0.9
경 남 남	2.1	1.8	1.8	5.7	1.1	1.1	2.2	0.5
경 남 서	1.1	0.9	0.8	2.8	0.7	0.6	1.4	0.2
청원중앙	1.0	1.1	1.5	3.6	1.0	0.7	1.7	0.7
울 산	0.9	0.9	0.8	2.6	0.8	0.7	1.5	0.4
제주직할	0.7	0.7	0.8	2.1	0.6	0.5	1.0	0.3
합 계	1.4	1.1	1.3	3.9	1.0	0.9	1.8	0.5

어린이교회의 평균 교사 수는 4명이 채 되지 않으며, 청소년교회는 2명이 되지 못한다. 교사 수급이 가장 원활한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로 어린이교회는 9.7명, 청소년교회는 3.9명의 교사가 평균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2023년에 비해 어린이교회 교사는 0.1명이, 청소년부 교사는 0.6명이 늘었다. 청년부 교사의 경우 서울중앙지방회가 지난해보다 0.1명이 준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 넘는 유일한 지방회가 되었다. 인천동지방회와 서울강남지방회가 각각 0.9명, 0.8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광역지역별 교회학교 교사 수 변화는 아래 <표 44>와 같다. 2024년도 대비 유치부 교사 수는 86명이 늘었는데, 영남지역에서 41명이 늘어 가장 많은 증가를 기록했고 그 뒤를 40명의 인천지역과 33명의 충청지역이 따르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은 28명이 줄었는데, 지난 2년간 유치부 교사 수는 150명이 늘었다.

〈표 44〉 2023년~2025년도 광역지역별 어린이교회 교사 수 변화표

유치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1,290	1,316	26	1,288	-28	-2
인천 지역	447	420	-27	460	40	13
경기 지역	354	352	-2	352	0	-2
강원 지역	176	158	-18	158	0	-18
충청 지역	644	732	88	765	33	121
호남 지역	392	376	-16	377	1	-15
영남 지역	504	516	12	557	41	53
계 주	16	17	1	16	-1	0
합 계	3,823	3,887	64	3,973	86	150

유년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896	882	-14	929	47	33
인천 지역	356	356	0	384	28	28
경기 지역	310	312	2	308	-4	-2
강원 지역	107	141	34	137	-4	30
충청 지역	568	613	45	667	54	99
호남 지역	426	422	-4	352	-70	-74
영남 지역	410	403	-7	465	62	55
계 주	18	17	-1	15	-2	-3
합 계	3,091	3,146	55	3,257	111	166

초등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1,056	1,135	79	1,001	-134	-55
인천 지역	448	446	-2	645	199	197
경기 지역	345	349	4	352	3	7
강원 지역	173	160	-13	165	5	-8
충청 지역	613	698	85	730	32	117
호남 지역	491	457	-34	421	-36	-70
영남 지역	493	428	-65	493	65	0
계 주	31	21	-10	18	-3	-13
합 계	3,650	3,694	44	3,825	131	175

어린이교회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3,242	3,333	91	3,218	-115	-24
인천 지역	1,251	1,222	-29	1,489	267	238
경기 지역	1,009	1,013	4	1,012	-1	3
강원 지역	456	459	3	460	1	4
충청 지역	1,825	2,043	218	2,162	119	337
호남 지역	1,309	1,255	-54	1,150	-105	-159
영남 지역	1,407	1,347	-60	1,515	168	108
계 주	65	55	-10	49	-6	-16
합 계	10,564	10,727	163	11,055	328	491

유년부 교사 수는 111명이 늘었는데 영남지역과 충청지역에서 각각 62명과 54명이 늘었으며, 서울지역도 47명이 늘었다. 반면 호남지역은 지난 한 해 70명의 유년부 교사가 줄었다. 지난 2년간 유년부 교사는 166명이 늘었다.

초등부 교사 수는 전년 대비 131명이 늘었는데, 인천지역에서 199명이 늘어난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134명이 줄었다. 2년간 초등부 교사는 총 175명이 늘었으나 호남지역에서 70명이 감소하였고, 서울지역에서도 55명이 줄었다.

어린이교회 교사 전체 숫자는 2024년에 비해 328명이 늘었고 2년간 491명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159명이 2년간 감소하였고, 서울지역도 24명이 줄었다. 제주지역 또한 16명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모두 늘었다.

2025년 청소년교회는 전년에 비해 22명의 교사가 증가하였다. 중등부에서는 지난 한 해 7명의 교사가 늘었는데, 서울지역에서만 51명이 늘었고, 인천지역도 33명이 늘었다. 강원지역에서는 33명의 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충청지역과 경기지역, 영남지역에서도 33명, 16명, 6명의 교사가 사라졌다.

〈표 45〉 2023년~2025년도 광역지역별 청소년교회 교사 수 변화표

중등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788	766	-22	817	51	29
인천 지역	319	309	-10	342	33	23
경기 지역	279	272	-7	256	-16	-23
강원 지역	109	133	24	100	-33	-9
충청 지역	455	544	89	522	-22	67
호남 지역	341	316	-25	316	0	-25
영남 지역	365	376	11	370	-6	5
제주	8	13	5	13	0	5
합 계	2,664	2,729	65	2,736	7	72

고등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690	661	-29	630	-31	-60
인천 지역	312	304	-8	312	8	0
경기 지역	234	245	11	242	-3	8
강원 지역	101	94	-7	100	6	-1
충청 지역	425	474	49	494	20	69
호남 지역	302	302	0	302	0	0
영남 지역	361	336	-25	353	17	-8
제주	8	13	5	11	-2	3
합 계	2,433	2,429	-4	2,444	15	11

청소년교회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1,478	1,427	-51	1,447	20	-31
인천 지역	631	613	-18	654	41	23
경기 지역	513	517	4	498	-19	-15
강원 지역	210	227	17	200	-27	-10
충청 지역	880	1,018	138	1,016	-2	136
호남 지역	643	618	-25	618	0	-25
영남 지역	726	712	-14	723	11	-3
제주	16	26	10	24	-2	8
합계	5,097	5,158	61	5,180	22	83

고등부의 경우 전년 대비 15명의 교사가 늘었는데, 충청지역에서 2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영남지역도 17명이 늘었다. 반면 서울지역은 31명이 줄었다. 지난 2년간 고등부 교사는 총 11명이 늘었는데, 충청지역에서 69명이 늘었고, 서울지역에서 60명이 줄었다.

<표 46> 2023년~2025년도 광역지역별 청년부 교사 수 변화표

청년부	2023	2024	'24-'23	2025	'25-'24	'25-'23
서울 지역	434	383	-51	390	7	-44
인천 지역	254	227	-27	203	-24	-51
경기 지역	137	136	-1	137	1	0
강원 지역	50	52	2	50	-2	0
충청 지역	204	256	52	266	10	62
호남 지역	119	124	5	142	18	23
영남 지역	175	190	15	217	27	42
제주	8	8	0	6	-2	-2
합계	1,381	1,376	-5	1,411	35	30

지난해 대비 우리 교단 청년부 교사 수는 35명이 늘었는데, 인천지역에서 24명이 줄어든 대신에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각각 27명과 18명이 늘었다. 지난 2년간 청년부 교사는 30명이 늘었는데 서울과 인천은 줄어든 대신에 충청, 호남, 영남에서는 늘었다.

2. 교역자 수의 변화

한국 사회는 2000년대부터 탈종교화 사회로 들어섰다.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이다. 이는 2014년의 50%에 비해 10%나 떨어진 비율이지만, 2024년에 비해서는 3%p 늘어난 수치이다.

종교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실에 교역자 수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의 재정이 악화하면 교역자의 생활 수준과 목회 사역의 질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단 헌법 제4조 2항 차호에는 목사에 대해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규정하며 이중직을 금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목회자가 생존을 위한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회자의 이중직은 이제까지는 모르는 척하며 눈감아주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조금씩 공공의 장으로 그 문제를 끄집어 내고 있다.

이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많은 전도사가 전임 사역지를 구할 수 없어 주중에 직업을 가지는 주말 사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에 따른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의 질적 하락은 결국 교회사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학교는 경영상의 이유로 교육 당국의 간섭을 덜 받는 특수대학원과 신학계열 학생 수를 늘리고 싶지만, 교단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졸업 후 사역에 관한 고민으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격차가 나는 임금의 문제 또한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도 없다. 1세대 2세대의 교역자보다 지금 사회는 더 많은 소비와 지출을 강요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의 가짓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생존’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어졌다.

목회자도 맞벌이가 당연해지고, 시골 아무리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라도 청빙의 소식만 들리면 이력서가 수십 장씩 쌓이는 것 또한 졸업 후 목회지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다. 교단은 왜 작은교회의 담임목사 자리는 젊은 목사들이 물리는 데, 지방은 물론 서울의 변두리 교회에서조차 부교역자를 구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세통계표〉를 통해 보고된 우리 교단의 교역자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7〉 연도별 교역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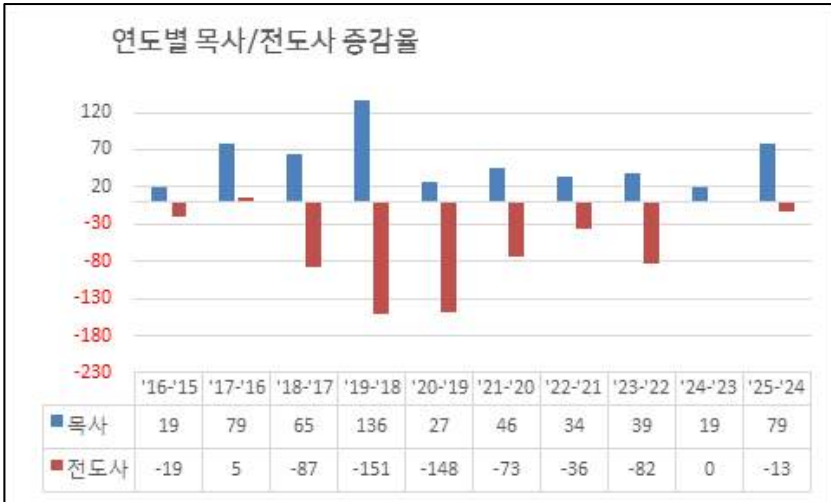
연도	목사	비중	전도사	비중	계
2015	4,401명	67.7%	2,097명	32.3%	6,498명
2016	4,420명	68.1%	2,073명	31.9%	6,493명
2017	4,499명	68.4%	2,082명	31.6%	6,581명
2018	4,564명	69.1%	2,043명	30.9%	6,607명
2019	4,700명	70.5%	1,962명	29.5%	6,662명
2020	4,727명	71.6%	1,875명	28.4%	6,602명
2021	4,773명	72.3%	1,827명	27.7%	6,600명
2022	4,807명	72.6%	1,815명	27.4%	6,622명
2023	4,846명	73.4%	1,756명	26.6%	6,602명
2024	4,865명	73.5%	1,757명	26.5%	6,622명
2025	4,944명	73.7%	1,768명	26.3%	6,712명
2025-2015	543명		-329명		214명
연평균	54.3명		-32.9명		21.4명

2015년 현재 4,401명이던 전체 목자의 숫자는 10년간 총 543명이 늘어 2025년 현재 4,944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2015년도에 2,097명이던 전도사의 숫자는 동기간 329명이 줄어 2025년 현재 1,768명이었다. 목사와 전도사의 증감 현황은 아래의 〈그래프 6〉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프 6〉 지난 10년간 교역자 수 변화



〈그래프 7〉 연도별 목사/전도사 증감율



연평균 목사는 54.3명씩 늘어나는데 전도사는 32.9명씩 줄어들고 있다. 비록 그 추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 할 것이다. 교역자의 직분에 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생활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빈약한 사례비 문제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 외에도 전도사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서울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수의 감소 보다 목회신학연구원, 특히 지방교역자양성원의 신입생 급감에도 주요한 원이 있다. 이미 신입생이 1~2명인 지방교역자양성원도 여럿이며,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던 서울중앙신학교마저 40여 명의 재학생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은 지방신학교양성원의 통폐합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의 허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총회임원회와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서울신학대학교와 목회신학연구원, 지방교역자양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인 추계를 연구한 후 통폐합과 정원 감소 등 과감한 정책과 더불어 전도사의 생활 수준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선까지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남전도사는 275명이 줄었고, 여전도사도 329명이 줄었다. 다만, 여전도사는 2024년부터 미미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섰다. 동기간 남목사는 290명이 늘었고 여목사도 253명이 늘었다. 여성 안수 제도가 총회

를 통과한 이후, 안수를 받는 여전도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남성 전도사의 대부분은 안수를 통해 목사가 되지만 여전히 여성 전도사의 절반은 여러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거나 전도사로 정년 은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내 연도별 남성-여성 교역자 비중의 변화는 오른쪽 <표 49>와 같다. 목사나 전도사를 불문하고 남성 교역자의 비중이 소폭 감소는 추세이며, 그만큼 여성 교역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 목사 숫자는 아직 목사 전체 인원의 8.7%밖에 되지 않지만, 전도사는 여성이 전체 전도사 인원의 6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하여도 남전도사의 절대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있지만, 여전도사의 안수받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전도사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48> 연도별 남녀 교역자 수 증감 현황

구분	목사		전도사	
	남	여	남	여
2016-2015	2명	17명	5명	-24명
2017-2016	42명	37명	-4명	9명
2018-2017	30명	35명	-48명	-39명
2019-2018	108명	28명	-70명	-81명
2020-2019	-3명	30명	-61명	-87명
2021-2020	39명	7명	-25명	-48명
2022-2021	2명	32명	-24명	-12명
2023-2022	15명	24명	-23명	-59명
2024-2023	11명	8명	-1명	1명
2025-2024	44명	35명	-24명	11명
합계	290명	253명	-275명	-329명

<표 49> 연도별 전체 교역자 중 남성-여성 교역자 비중 증감 현황

구분	목사		전도사	
	남	여	남	여
2015	95.9%	4.1%	43.7%	56.3%
2016	95.6%	4.4%	44.4%	55.6%
2017	94.8%	5.2%	44.0%	56.0%
2018	94.1%	5.9%	42.5%	57.5%
2019	93.7%	6.3%	40.7%	59.3%
2020	93.1%	6.9%	39.4%	60.6%
2021	93.0%	7.0%	39.0%	61.0%
2022	92.4%	7.6%	38.0%	62.0%
2023	92.0%	8.0%	37.9%	62.1%
2024	91.8%	8.2%	37.8%	62.2%
2025	91.3%	8.7%	36.3%	63.7%
2025-2015	-4.7%	4.7%	-7.4%	7.4%

3. 교직자 수의 변화

교회 안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의 운영과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교직자 수의 변화는 해 교회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 교단은 장로 35세, 권사 45세, 안수집사 35세, 집사 22세로 해당 직분의 최저 연령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직분의 인구 변화를 살펴면 교회나 교단을 구성하는 성도의 연령대 분포를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50〉 연도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수 변화

연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합계
2015	6,998명	46,548명	8,715명	126,238명	188,499명
2016	7,111명	46,839명	8,824명	120,407명	183,181명
2017	7,283명	48,838명	9,268명	119,341명	184,730명
2018	7,527명	50,010명	9,558명	116,545명	183,640명
2019	7,722명	51,350명	9,691명	117,034명	185,797명
2020	7,817명	52,665명	9,844명	111,552명	181,878명
2021	7,975명	53,780명	10,014명	109,772명	181,541명
2022	8,144명	54,644명	10,267명	107,033명	180,088명
2023	8,284명	57,255명	10,474명	104,358명	180,371명
2024	8,413명	56,821명	10,506명	103,007명	178,747명
2015	8,477명	57,181명	10,719명	102,061명	178,438명
2025-2015	1,479명	10,633명	2,004명	-24,177명	-10,061명
연평균	147.9명	1,063.3명	200.4명	-2,417.7명	-1,006.1명

〈교세통계표〉를 통해 보고된 지난 10년간 교회 안의 교직자 수의 증가는 〈표 50〉과 같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장로는 1,479명이 늘었고, 권사는 10,633명이 늘었다. 안수집사 또한 2,004명이 늘어났으나 집사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4,17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집사의 감소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015년에 보고된 남집사의 숫자는 48,113명, 여집사는 78,125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남집사는 41,892명으로 6,221명이 줄었고, 여집사는 17,956명이 줄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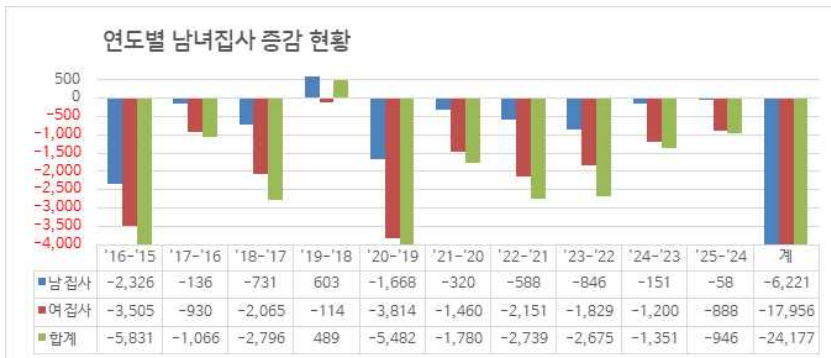
60,169명으로 보고 되었다.

〈표 51〉 연도별 남녀 집사 수 증감 현황

집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48,113	45,787	45,651	44,920	45,523	43,855
여	78,125	74,620	736,90	71,625	71,511	67,697
집사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2014
남	43,535	42,947	42,101	41,950명	41,892명	-6,221명
여	66,237	64,086	62,257	61,057명	60,169명	-17,956명

문제는 추세이다. 매년 1,800여 명씩 여집사가 줄어드는 대신 1,035명씩 여성 권사와 여성 장로가 늘어나고 있다. 남성 집사도 매년 622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남성 권사와 남성 장로는 176여 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프 8〉 연도별 남녀 집사 수 증감 현황



우리 교단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받는 것을 고려하면 30대 초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의 집사들이 대거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교회 안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 안의 고령화 현상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노년 성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상설화된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변경해야 하며, 지교회가 연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교인구성비의 변화

(표 52) 연도별 전체 교인 대비 세례교인, 새신자 인원 및 비중 변화

연도	세례교인		새신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15	319,914명	65.1%	77,045명	15.7%
2016	302,226명	65.5%	73,627명	16.0%
2017	301,048명	66.2%	69,013명	15.2%
2018	296,178명	67.4%	61,472명	14.0%
2019	292,955명	68.0%	60,129명	14.0%
2020	283,361명	71.0%	46,462명	11.6%
2021	282,172명	72.2%	46,211명	11.8%
2022	280,861명	72.6%	46,373명	12.0%
2023	280,093명	72.6%	46,757명	12.1%
2024	277,457명	72.9%	45,231명	11.9%
2025	277,783명	72.7%	49,399명	12.9%
2025-2015	-42,131명	7.6%	-27,646명	-2.8%
연평균	-4,213.1명	0.76%	-2,764.6명	-0.28%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분자와 세례교인과 새신자가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할 것이다. 새신자 규모가 작다면 교회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직분자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라면 향후 급격한 교세 감소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

2015년도 우리 교단 전체 교인 대비 세례교인과 새신자의 비중은 각각 65.1%와 15.7%였다. 10년 후 2025년에는 그 비중이 세례교인은 72.7%로 새신자는 12.9%로 변화하였다. 동 기간 내 세례교인 수와 새신자 유입 수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세례교인 수는 42,131명이 줄어 전체 세례교인 수의 13.2%가 감소하였고, 새신자 수는 27,646명이 줄었는데 이는 2015년도 새신자 유입 수의 35.9%에 해당한다. 지난 10년간 세례교인은 연평균 4,213명이 줄었고, 새신자 유입 수는 그 절반이 넘는 2,76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세례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교회 내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그 추세가 잠시 멈추었지만 지난 10년간 세례교인 수가 13.2% 감소하는 동안 교회 내 세례교인의 비중은 7.6%가 늘었다. 반면에 새신자 유입 수가 35.9% 줄어드는 동안 교회 내에서 새신자의 비중도 2.8%씩 줄어든 것이다.

세례교인의 절대 인원이 줄어들고, 새신자의 유입 비중도 줄어들지만 세례 교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교인 대비 각 직분의 비중은 아래 <표 50>과 같다.

<표 53> 연도별 전체 교인 대비 각 직분 비중 변화

연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학교
2015	1.4%	9.5%	1.8%	25.7%	19.0%
2016	1.5%	10.1%	1.9%	26.1%	18.6%
2017	1.6%	10.7%	2.0%	26.3%	18.6%
2018	1.7%	11.4%	2.2%	26.5%	18.6%
2019	1.8%	11.9%	2.2%	27.2%	18.1%
2020	2.0%	13.2%	2.5%	27.9%	17.4%
2021	2.0%	13.8%	2.6%	28.1%	16.0%
2022	2.1%	14.1%	2.7%	27.7%	15.4%
2023	2.1%	14.8%	2.7%	27.1%	15.3%
2014	2.2%	14.9%	2.8%	27.1%	15.1%
2015	2.2%	15.0%	2.8%	26.7%	14.6%
2025-2015	0.8%	5.5%	1.0%	1.0%	-4.4%
연평균	0.1%	0.5%	0.1%	0.1%	-0.4%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전체 교인 대비 장로의 비중은 1.4%에서 2.2%로 0.8%p 늘었으며, 권사는 5.5%p, 안수집사는 1.0%p 늘어났다. 집사도 1.0%p 늘었는데 2015년도에 25.7%였던 교인 대비 집사의 비중이 2025년에는 1.0%p가 늘어 26.7%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 2015년 전체 교인 수의 19.0%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학교 학생 수는 2025년 현재 14.6%까지 줄어들었다. 계속 우하향 추세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2025년 전체 인구는 51,930,817명이다. 이중 0세부터 14세 인구는 5,420,798명인데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10.5%인 것에 비한다면 아직은 4.1%의 여유가 있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 감소 속도보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참고로 0세부터 19세까지의 인구는 7,699,832명으로 전체 인구 대

비 14.9%의 비중으로 교회학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면 인구구성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54〉 연도별 교회 내 직분자 비중 변화

연도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2015	3.3%	3.6%	23.9%	4.5%	64.7%
2016	3.4%	3.7%	24.7%	4.7%	63.5%
2017	3.4%	3.8%	25.5%	4.8%	62.4%
2018	2.4%	4.0%	26.6%	5.1%	61.9%
2019	3.5%	4.0%	26.7%	5.0%	60.8%
2020	3.5%	4.1%	27.9%	5.2%	59.2%
2021	3.5%	4.2%	28.6%	5.3%	58.3%
2022	3.5%	4.4%	29.3%	5.5%	57.3%
2023	3.5%	4.4%	30.6%	5.6%	55.8%
2024	3.6%	4.5%	30.7%	5.7%	55.6%
2025	3.6%	4.6%	30.9%	5.8%	55.1%
2025-2015	0.3%	1.0%	7.0%	1.3%	-9.6%
연평균	0.03%	0.1%	0.7%	0.13%	-0.96%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회 내 직분자들의 구성비 변화는 위 〈표 54〉와 같다. 교회 내 직분자 중 교역자의 비중은 2015년 3.3%에서 2025년 3.6%로 0.3%p 늘었다. 반면 장로의 비중은 3.6%에서 4.6%로 1.0%p가량 늘어났으며 권사와 안수집사는 각각 23.9%와 4.5%에서 30.9%와 5.8%로 7.0%p와 1.3%p 늘어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집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비중의 감소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2015년 전체 직분자 중 64.7%를 차지하던 집사의 비중이 2025년 현재 55.1%로 9.6%p나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무디어지긴 하였지만, 감소 추세는 여전하며 이는 교단의 고령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5. 목회 현장의 변화

교단의 유일한 통계자료인 <교세통계표>를 매년 분석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목회 현장에 있다. 교회 수의 증가와 교인 수의 감소는 이제 일상화된 현상이며, 직분자의 증가에 못 미치는 새신자의 증가 속도는 교회 현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표 55> 연도별 교회당 평균 기대치 변화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새신자	교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학교
2015	114.5명	27.6명	175.9명	2.5명	16.7명	3.1명	45.2명	33.5명
2016	107.4명	26.2명	164.1명	2.5명	16.7명	3.1명	42.8명	30.5명
2017	105.3명	24.1명	159.0명	2.5명	17.1명	3.2명	41.8명	29.5명
2018	104.1명	21.6명	154.4명	2.6명	17.6명	3.4명	41.0명	28.7명
2019	101.5명	20.8명	149.3명	2.7명	17.8명	3.4명	40.6명	27.0명
2020	97.8명	16.0명	137.8명	2.7명	18.2명	3.4명	38.5명	23.9명
2021	97.5명	16.0명	135.1명	2.8명	18.6명	3.5명	37.9명	21.6명
2022	97.0명	16.0명	133.6명	2.8명	18.9명	3.5명	37.0명	20.5명
2023	96.1명	16.0명	132.3명	2.8명	19.6명	3.6명	35.8명	20.2명
2024	95.2명	15.5명	130.5명	2.9명	19.5명	3.6명	35.3명	19.7명
2025	96.1명	17.1명	132.2명	2.9명	19.8명	3.7명	35.3명	19.3명
'25-'15	-18.4명	-10.5명	-43.7명	0.4명	3.1명	0.6명	-9.9명	-14.2명
연평균	-1.84명	-1.05명	-4.37명	0.04명	0.31명	0.06명	-0.99명	-1.42명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교단의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새신자, 교인, 직분자 및 교회학교 숫자는 위 <표 55>와 같다. 2015년 교회당 평균 114.5명이던 세례교인은 현재 96.1명으로 18.4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95.2명에 비해 0.9명이 늘어난 것인데, 지난해 24개 교회가 폐쇄됐지만 세례교인 수는 326명이 늘어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새신자 유입수는 동 기간에 27.6명에서 17.1명으로 10.5명이 감소하였고, 교인 수 역시 175.9명에서 132.2명으로 연평균 4.37명씩, 43.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해 그 감소세는 확실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하향하는 추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수는 교회의 역량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고, 새신자 수는 교회의 역동성을, 교인 수는 교회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즉 세례교인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인적·물질 기여가 가능한 교인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신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교회당 평균 장로 수는 2.5명에서 2.9명으로 0.4명이 늘었으며, 권사는 16.7명에서 19.8명으로 3.1명이 늘었다. 안수집사도 3.1명에서 3.7명으로 0.6명이 늘었지만, 집사와 교회학교 학생 수는 각각 45.2명과 33.5명에서 35.3명과 19.3명으로 줄어 지난 2015년 이래 교회당 평균 집사 수는 9.9명, 교회학교 학생 수는 14.2명이 감소하였다.

〈표 56〉 목사 1인당 기대 세례교인, 교인수

연도	목사 1인당 기대			
	세례교인		교인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15	72.7명	-	111.7명	-
2016	68.4명	-4.31명	104.4명	-7.24명
2017	66.9명	-1.46명	101.0명	-3.40명
2018	64.9명	-2.02명	96.3명	-4.76명
2019	62.3명	-2.56명	91.7명	-4.57명
2020	59.9명	-2.39명	84.4명	-7.24명
2021	59.1명	-0.83명	81.9명	-2.54명
2022	58.4명	-0.69명	80.4명	-1.47명
2023	57.8명	-0.63명	79.6명	-0.84명
2024	57.0명	-0.77명	78.2명	-1.40명
2025	56.2명	-0.85명	77.3명	-0.90명
2025-2015	-16.5명	-0.85명	-34.4명	-0.9명
연평균	-1.65명	-0.085명	-3.44명	-0.09명

목사 1인당 평균 세례교인 수와 교인 수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 1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015년 목사 1인당 담당하는 세례교인은 72.7명이고 교인은 111.7명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목사 1인당 세례교인 수는 56.2명으로 16.5명이 줄었으며, 교인 수는 77.3명으로 34.4명이 감소하였다.

2025년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400,964원이다. 일반적인 교인이라면 매년 540만 원의 십일조를 헌금하게 되고 절기와 여러 헌금을 한다는 가정하에 1인당 6,000,000원의 헌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25년도에 기대하는 세례교인 56명의 성도가 부모와 두 자녀가 4인 가구를 이루었을 경우, A 교회는 14가구가 출석하는 교회라 할 수 있다. 한 가정당 6,000,000원의 헌금을 매년 한다고 할 때, 해 지교회의 기대 예산은 84,000,000원이다. 우리 교단은 정상비 30,000,000원 미만의 교회를 작은교회(미자립교회)로 규정하고 있으니 A 교회는 작은교회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운영에 지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2025년 현재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는 겨우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 규모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현재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평균 수는 1.6명, 전도사는 0.8명으로 2.4명의 교역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5년에는 목사 1.7명, 전도사 0.6명으로 2.3명이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기간 목사는 0.1명이 늘고 전도사는 0.2명이 줄었다.

6.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교단의 현황을 <교세통계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은 통계치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아·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야기되는 교회학교 공동화 등은 사회구조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전도가 되지 않기에 교회의 고령화가 가속되며 교회학교의 공동화가 급속히 발생하는 것이다. 기 성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신자가 교회에 유입되지 않음으로 봉사와 사역을 담당할 교회의 허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며 보좌해야 할 총회본부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점이 여기에

있다. 50여 년 전에 설계된 총회본부의 조직은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도움을 요청하는 지교회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조직은 조금 더 통합적이어야 하며 수행업무를 위한 유기적이며 유연한 형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직원 개인의 능력은 곧 교단 발전의 가늠자라 할 수 있기에 직원의 계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단의 발전을 조망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제출하는 계획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118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 행정

제117년차~제119년차
(2023년~2025년)

SMART로 열어나가는 총회 행정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새정보미디어)에 따르면 행정을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행정의 기능을 단순히 정책집행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책형성과 정책 결정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단헌법 제79조(설치목적)에 따르면 총회본부의 존재 이유를 ① 총회의 업무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 ② 총회장의 통솔 하에 내외의 모든 업무를 총괄 ③ 총회의 결의사항과 위임 사항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제118년차 총회본부는 “사람에게는 진심(眞心)으로 하나님께 전심(全心)으로”라는 표어 아래 총무를 중심으로 “SMART로 열어나가는 총회 행정”을 기치로 다음과 같이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1. Superior & Speedy: 탁월한 업무처리와 지체함이 없는 행정

총회본부를 찾는 방문객은 크게 향존위원회나 의회부서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총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지교회의 건축이나 매매 등을 위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문으로 나눌 수 있다.

총회가 위임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총회본부 담당 국장과 직원이 총무의 지도하에 기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행정 문서를 발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총회본부의 모든 업무는 ‘기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공사가 중요하듯 한 장의 기획서를 제작하는 일은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 그리고 이후 조치까지의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기획서를 읽는 누구나 이해하고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총회본부는 신입 직원을 위한 직무교육(OJT, On the Job Training)을 시행하지 못했다. 미처 자신의 업무를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실무에 투입되어 실수를 통해 업무를 배우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또한 인사이동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면 원활한 인계인수를 할 틈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총회본부 OJT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서작성과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기안 작성과 담당하는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심화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한다.

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행정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필요한 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무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증명서 발급 절차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미비한 행정 사항들을 보완하여 적시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2. Maintenance & Manual: 점검하며 기록하여 누구나 이해하는 행정

총회본부의 행정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표준이다. 지방회는 총회의 행정을 본보기 삼아 업무를 진행하며 지교회는 그 지방회의 행정을 본받는다. 따라서 총회본부가 정확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교단 전체가 흐트러짐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

총회본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세심한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무사안일한 행정은 결국 실수를 낳게 된다. 총회본부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은 실무직원들의 상호 확인을 통해 세밀함이 살아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총회본부 행정의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관공서 수준으로 끌어올려 누구나 이해하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하겠다.

3. Advanced & Assistance: 지방회와 지교회를 돕는 행정

총회본부는 교단 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방회와 지교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총회본부는 지방회와 지교회의 행정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의무가 있다. 4국 1과의 직원들이 지방회와 지교회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4. Research & Realize: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

총회본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정책 수립'이다. 모든 정책은 실현할 수 있는 단계로 수립이 되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총회본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국장과 팀장들이 수시로 모여 총회의 각종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특히 선교국과 교육국은 지 교회의 필요에 직접적인 답을 제시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현장성을 강화하고 중대형교회부터 작은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랜B, 플랜C를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5. Timely & Trendy: 시의 적절한 행정

모든 행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발 앞서 길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회, 지교회와 총회본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 목회사역에 활용할 수 있고 지방회 행정에 참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정책보고서